SW 신원이엔지
대표 김 종 인
TEL:(042) 823-2713
FAX:(042) 823-2714
H·P:010-5455-7591

大田투데이

안정된 노후설계
농지연금
상담문의 1577-7770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젊은생각 · 바른신문 전화 042-538-3030 구독배달 042-538-1602 www.daejeontoday.com 제 2389호 2016년 8월 1일 월요일

이장우 · 정용기 최고위원 후보단일화 성공할까?

본격 경선레이스 돌입, 충청권 전대서 표 갈라질라 … 지역민들 관심 집중

새누리당 8 · 9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에 나선 이장우(51 · 대전 동구 · 2선 · 좌) 의원과 정용기 의원(54 · 대전 대덕구 · 2선 · 우)이 본격적인 경선레이스에 돌입한 가운데 향후 이들의 후보 단일화 여부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충청지역 출신으로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을 거쳐 새누리당 대전시당 위원장을 지낸 공통점을 지녔고, 친박으로 분류되는 인물이기에 그만큼 정치권의 스폿라이트를 받아왔다.

일각에서는 대전지역 정치인들끼리 이전투구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두 의원들이 후보단일화에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재로서는 입장차이가 커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낡은 관행과 체질을 혁파해서 '희망'을 주는 정치, '변화'가 있는 정치, '정의로운' 정치를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생과 서민경제 논의를 위한 '흙수저위원회' 설치 ▲보여주기 식 당무 척결 ▲중요 의사결정에 '전 당원 투표제' 도입 ▲당 중앙위원회의 위상 재정립 및 역할 강화 ▲원외위원장의 당무 참여 대폭 확대 ▲책임당원의 권리 강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 복원을 위한 각종 제도 마련 등을 공약했다.

정 의원도 같은 날 후보 등록 뒤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대선승리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대선후보 경선관리, 국민이 나라의 주인되는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후보 권력분산형 개헌 추진, 4대 보수의 가치를 바탕으로 새롭고 건강한 보수정당 건설의 뜻을 이루고자 출마했다"고 밝혔다.

대전지역민들의 관심은 전당대회를 1주일 여 앞두고 후보 단일화 성사 여부다. 자칫 충청지역 의원끼리 소모적인 경쟁으로 좋지않은 결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의원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경선까지 완주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단일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 후 최근 중앙언론기자들과 인터뷰에서 "뜻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과의 단일화는 아합"이라며 사실상 어떠한 단일화 제안에도 응할 생각이 없음을공언했다.

정 의원 역시 "이장우 의원과 단일화 여부에 대해 접촉했으나 어떤 방식의 단일화 제안도 거부했다"고 언론과의 최근 인터뷰에서 밝혔다.

현재로서는 친박으로 분류되는 이장우 의원과 범친박인 정용기 의원의 동반 당선도 점쳐지고 있으나 과연 대의원들이 대전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모두 당선시켜주겠느냐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때문에 남은 기간동안 두 의원들이 후보 단일화에 어떻해서라도 나서야 하는 것이 지역 정치권에 득이 되지 안않겠느냐는 여론이다.

현재 일반최고위원 경선에 원내에서는 두 의원을 비롯해 조원진(57 · 대구 달서병 · 3선) · 함진규(56 · 경기 시흥갑 · 2선) · 이은재(64 · 여 · 서울 강남병 · 2선) · 강석호(60 · 경북 영양 · 영덕 · 봉화 · 울진 · 3선) · 최연혜 의원(61 · 여 · 비례 · 초선)<기호순>, 원외는 정문헌(50) 전 의원 등 8명이 출마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대표최고위원을 폐지하고 당 대표를 신설, 5명의 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포함)을 별도 선출(선거인단 투표 70%, 일반국민 여론조사 30%)한다. 당대표 선거는 1인 1표제로, 최고위원 선거는 1인 2표제로 치러진다.

이정복 기자

권 시장, 전국 상점가상인연합회 대전지부와 경청간담회 가져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난달 29일 오전 옛)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50여명의 전국 상점가상인연합회 대전지부와 사랑방 경청회를 개최하고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및 주차장 확보 등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사면 10% 환급

산업부, 인센티브 지원 온라인 환급시스템 개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지난달 29일 개설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소비자는 일정한 신청절차를 거쳐 구매금액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인센티브를 지급 받으려는 소비자는 컴퓨터나 모바일로 환급시스템(www.erebates.or.kr)에 접속해야 한다. 접속 후 신청자(성명, 휴대전화 번호 등)와 구매정보(거래명세서 등), 제품정보(제조번호 등)를 입력한 후 환급받을 본인 계좌를 쓰면 된다.

환급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청을 완료한 건에 대해 이번 환급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다만, 입력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정, 보완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 시기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문의는 한국에너지공단(031-260-4275, 4276), 한전 콜센터(123), 에너지공단 콜센터(1544-7712)에서 가능하다.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인센티브 환급'은 일반 가정의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전환수요를 창출하고 국민의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환 기자

'농업인 폭염 피해 우려' 주의 당부

최근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농업인들도 폭염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한여름 낮 작업은 고온에 의한 열사병과 열경련 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삼가는 것이 좋다.

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짧은 휴식을 자주 취하고, 2명 이상이 함께 작업해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비하며, 환자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119에 연락해야 한다.

도 농업기술원 자원식품과 김창희 지도사는 "여름철 폭염 속 농작업 시 고령 농업인 중심으로 농작업 안전관리 요령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업인 스스로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안전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한기자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 백서 발간

20여 년간의 여정 한 권의 책 속에

백제세계유산센터는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맞아 '2015년 7월 백제역사유적지구, 전 인류의 유산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백제역사유적지구 백서를 발간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300여 쪽 분량의 총 8장으로 구성된 백서에는 ▲세계유산의 이해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백제역사유적지구로의 통합과 등재추진단의 출범과 활동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작성과 제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심사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와 기념행사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적 가치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현재와 미래 등 1994년부터 20여 년에 걸친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여정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수록하였다.

백제세계유산센터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전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일반인은 물론 관심있는 기관 또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는 관계자들이 백제역사유적지구 백서를 이정표 삼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백서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센터장은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20여 년 간의 노력을 기록한 이 백서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는 과정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한국갤럽〉 박대통령 지지율 31%… 우병우 의혹으로 소폭 하락

총선 이후 15주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29~34%, 부정률 52~58%

한국갤럽이 2016년 7월 넷째 주(26~28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31%가 긍정 평가했고 55%는 부정 평가했으며 14%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9%).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1%포인트 하락했고 부정률은 변함 없다. 총선 이후 15주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29~34%, 부정률은 52~58% 범위를 오르내리고 있다. 각 세대별 긍/부정률은 20대 9%/67%, 30대 17%/72%, 40대 21%/67%, 50대 39%/50%, 60대+ 61%/27%다.

주요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308명)은 64%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231명)과 국민의당 지지층(121명)에서는 각각 81%, 68%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300명)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0%, 부정 52%).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은 지난주와 비슷하지만,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외교/국제 관계' 응답이 줄고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인사 문제' 지적이 많아졌다. 이는 최근 특별감찰이 시작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 건의 영향으로 보인다. 야권은 우 수석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주 휴가 중으로, 언론 노출이 적었다. 참고로 박 대통령 취임 첫 해 휴가 기간(2013년 8월 첫째 주) 중 직무 지지율은 57%, 두 번째 휴가(2014년 7월 다섯째 주) 중에는 40%였고 세 번째 휴가 기간인 작년 7월 다섯째 주에는 34%였다.

정당지지도 조사에선 새누리당 31%, 더불어민주당 23%, 국민의당 12%, 정의당 4%, 없음/의견유보 30%다. 새누리당 지지도는 지난주 대비 1%포인트 상승,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당은 2%포인트 하락했다. 지지정당 없는 무당층 비율은 총선 이후 최대치다.

이번 조사는 지난 26~28일 3일간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20%다(총 통화 4,994명 중 1,004명 응답 완료).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정환기자

예산군의회, 제2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폐회 예산군의회(의장 권국상)는 지난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개회한 제22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동안 올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 청취 및 115건의 군정질문을 통해 크고 작은 군정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으로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군정 추진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시정 조치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는 군의회에서 의원 발의한 '예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의 · 의결했다.

한 · 러 · 일 청소년국제교류단, 대전시의회 방문 대전시의회 김경훈 의장은 7월 29일 일본 삿포로시 마루야마 다이스케인솔단장 등 한 · 러 · 일 청소년 국제교류단 81 명을 접견했다. 이번 대전시의회 방문은 대전광역시와 자매도시간의 상호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홈-스테이를 통한 상대국역사와 풍습 및 청소년문화이해 등 상호 도시간 우호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날 김경훈 의장은 한 · 러 · 일 청소년국제교류단에게 본회의장 등의회를 보여주면서 시의회의 구성과 역할 등에 대해 설명하고 "양 도시의 청소년들이 서로의 문화와 제도를 이해하고 자라서 우리시와 교류를 확대하는 좋은 동반자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대대적 조직 개편

더불어민주당 제26차 당무위원회의에서 지역위원장 단수인준을 받은 6개 지역위원회가 지역위원회 조직 개편 마무리에 들어간 것이다.

▲동구(강래구위원장), ▲중구(송행수위원장), ▲서구갑(박병석위원장), ▲서구을(박범계위원장), ▲유성구갑(조승래위원장), ▲유성구을(이상민위원장)이 29일, 30일 양일 동안 각각 정기 지역대의원대회를 실시한다.

사고지역위원회로 분류되었던 대덕구 지역위원회는 공석인 위원장직에 김명경 전 대전시의원이 직무대행으로 결정됨에 따라 다음 주까지 지역개편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또한 더민주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역위원회 개편이 마무리되는 오는 8월 4일, 5일 이틀간 대전시당위원장 후보 공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후보 등록이 완료된 후 시당위원장은 오는 8월 19일(금) 오후4시에 예정된 대전시당 정기개편대회에서 선출하게 된다.

정기개편대회는 시당위원장 선출 및 당대표 · 최고위원 합동 연설회로 진행되며 오는 전당대회에 앞서 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정복기자

박종준 새누리당 세종시당 위원장 취임식 '본격업무'

"변화 · 혁신으로 내년 대선 승리"

박종준 새누리당 세종시당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어진동 태한프레스센터 3층 시당사무실에서 열린 시당위원장 취임식과 당사이전 개소식에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 3개월여 동안 반성하고 지지자들에게 진 빚을 갚아야겠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섰다"며 "솔직한 심정으로 6.25 전쟁 당시 낙동강 최후의 방어선을 지키고 있는 구국의 심정과 같다"고 했다.

그는 당사를 신도시로 이전한 것과 관련 "현재 세종시는 젊은 층이 집중되고 이주 인구가 전체 70%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보수층 위주의 접근 전략을 바꾸고 젊은 층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당대표 후보로 나선 이주영 정책위의장(5선, 전 해양수산부장관 · 경남 마산)과 정병국 의원(5선, 경기 여주양평), 이정현 의원(3선,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 비서관 · 전남 순천)이 참석했다.

세종=이정복기자

공주시의회, 2016 상반기 의정발전 유공시민 시상식

제7대 후반기 윤홍중 의장 취임식도 겸해

공주시의회는 지난 7월29일 본회의장에서 제1차 정례회 6차 본회의를 마치고 윤홍중 의장 취임식과 함께 '2016년도 상반기 의정발전 유공시민 시상식'을 가졌다.

이 날 윤홍중 의장은 취임사를 통해 "공주시의회 제7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어 오늘 취임식을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의장으로 선출되기까지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공주의 발전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할 것이며 활짝 열린 의회로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문턱은 더 낮게, 더 낮은 자세로 나아가고 시민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듣고 화합으로 시민이 희망을 키워가며 시민이 더 행복해지는 바른 의정으로 지방자치 정립에 앞장서 나가고 메마른 삶에 행복한 희망을 전해주는 의회, 시민의 소리도 잘 챙겨주는 의회, 틀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의 갈증을 풀어주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며 "함께하는 힘, 함께하는 의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분들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시민들이 함께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시민들에게 수여하는 의정발전 유공시민 시상식이 있었다.

이 날 시상식에는 18명의 유공시민이 표창장을 받았으며, 자리를 함께한 의원들은 각 지역별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며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표창을 수여한 윤 의장은 "오늘 공주시의회의 의정발전과 공주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여러분을 한 자리에 모시고 시상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수상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러분의 고귀하신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공주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이상민 의원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시 공개 채용해야"

사립학교 채용비리 근절시키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채용 공개로 하는 <사립학교법개정안>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유성을)은 29일 사립학교 채용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채용을 공개로 하는 <사립학교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원 중 교장이 아닌 교원의 신규채용은 시'도별로 사립학교 교원 임용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해, 그 합격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관할 교육청에 위탁하여 공개전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상민 의원은 "초중등 교육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늘어나고 사학의 공공성이 강조됨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과정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해 검찰수사결과 드러난 대전지역 대성학원의 교사채용비리는 교사 채용의 댓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고질적인 채용비리 행태로서 해당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의원은 "그 어느 곳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교단에서 더 이상 추악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 대부분의 사립학교의 교원 인건비가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본 법안은 사립학교에 대한 무리한 간섭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법의 시행으로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 있어 소위 '빽'이나 '금품' 관행이 사라지고 실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춘 교원이 공정하게 채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 법의 시행으로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 있어 소위 '빽'이나 '금품' 관행이 사라지고 실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춘 교원이 공정하고 바람직한 채용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법통과를 위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과 정부를 설득하여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법통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정복기자

보령시의회, 화력발전 환경 오염 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배)는 제19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령지역 화력발전 환경오염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한태 의원에 따르면 화력 발전 과정에서 생성되는 미세먼지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대기 및 수질오염 뿐만 아니라 암 발생 등 주민건강이 우려되는 사항이 최근 속속 밝혀지고 있다.

특히 노후된 보령 1 · 2호기를 2025년까지 10년 연장하여 가동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뜻에 역행하고 있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결의 내용으로는 ▲30년 이상 운영 중에 있는 노후된 보령화력 1 · 2호기에 대한 2025년까지의 가동결정을 철회할 것 ▲비수도권의 화력발전소 환경오염 배출 허용기준을 조속히 개선하여 수도권과의 동일한 기준으로 강화 적용할 것 ▲화력발전소 환경오염 저감시설 개선 및 환경설비 보강 등에 대하여 발전 회사간 자율 협약에만 맡기지 말고 철저한 환경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책임있게 시행할 것 ▲정부는 발전소 주변지역 반경 5km 이내로 한정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원자력 수준으로 인상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실시하는 등 지역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보령시의회, 보령공군사격장 환경피해 대책 촉구 건의

제19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배)는 제19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령공군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한동인)가 상정한 「보령공군사격장 환경피해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한동인 위원장은 "우리시는 서해안 최대의 관광휴양도시임에도 2개의 공군사격장이 자리잡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수십년간 소음과 수질 및 해양생태계 오염 등 환경 피해로 인해 생활불편과 함께 고통에 시달리며 직 · 간접적인 재산상 불이익 등 상대적 박탈감과 극심한 소외감에 분노마저 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또 "군사시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지원이나 보상도 하지 않은 채 피해 조사 및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정부가 나서서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건의문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건의 내용으로는 ▲토양 · 수질(지하수) 등 환경오염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주민들의 암 발생율 증가에 따른 정밀 검진 및 주기적인 건강 역학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공개해 줄 것 ▲해양생태계의 정밀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격구역내 탄두 등의 수거를 확대해 줄 것 ▲군 사격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 최소화 대책과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직 · 간접적인 보상 및 항구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한 법적 ·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여 줄 것 ▲지역주민과의 문제해결 및 환경영향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 구축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해 줄 것 이다.

채택된 건의안은 국방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등에 발송한다.

보령=이정복기자

고의로 불량식품 유통하면 바로 시장서 퇴출된다

앞으로 유통기한을 위변조하는 등 고의적으로 불량식품을 유통할 경우 즉시 시장에서 퇴출된다.

또 성범죄자 감시 기능이 강화된 일체형 전자발찌를 개발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건강보험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4대악 근절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폭력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과 치안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특히 여름철 몰카 및 피서지 성범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또 강화된 성폭력 사범 처리기준 이행현황 등을 분석, 후속대책을 9월까지 수립하고 성범죄자 감시 기능이 강화된 일체형 전자발찌를 연말까지 개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과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건강보험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무단결석이나 휴학중인 고등학생까지 학대 여부 일제점검을 확대 실시한다.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가정 폭력 예방 부모교육 매뉴얼 마련, 백화점 · 마트 문화센터 연계 교육 등 생애주기별로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내실화한다.

또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아동의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언론사와 협의해 적정한 보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 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간 성폭력 예방 및 대응방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는 Wee센터에 정신과 자문의(1~3명)를 지정 · 운영하고 고위기 학생에 대한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한 심리치료도 활성화 해 나간다.

김정환기자

갑을오토텍 노사갈등 돌파구 찾나?

아산시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개최… 복기왕 위원장 "모든 방법 동원 해결"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복기왕 아산시장)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갑을오토텍 노사갈등의 문제를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현장의 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복기왕 아산시장을 위원장으로 구성된 아산시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긴급으로 본회의를 개최하고 갑을오토텍 노사 양측을 초청하여 각각 서로의 입장을 청취했다.

복기왕 위원장은 "지역에서 유성기업사태 이후 다시 갑을오토텍 사태가 발생하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노사 양측의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며 "노사양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노사민정협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사측관계자는 사측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현재 언론에 비춰진 내용에 대하여 상당부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많다"며 "현재 노사 쟁점사항인 '쟁의 중 대체근로에 대해 회사의 손실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법적인 범위안에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직장폐쇄와 관련해서는 "노조가 현장복귀에 대한 약속이 전제가 된다면 언제든 풀 수 있다'고 말하고 '노조와 교섭의 창구는 개방해 놓고 있다"면서 교섭의 여지를 보였다. 또한, 모두가 바라는 물리적 충돌 없는 평화적 해결에 대한 의지에 대하여는 "경비용역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충돌을 대비한 방어적 선택은 아니다. 오해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노조측은 노사갈등사태로 인한 현장사수가 불가피한 상황의 이유를 들어 불참의사를 밝히면서 서면으로 '입장과 제안'을 밝혔다.

노조는 현재 사측의 직장폐쇄 조치에 대해 '불법직장폐쇄'로 단정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용역경비원 투입에 대해 해당 행정기관에 불허를 요청하며 협의회가 갑을오토텍의 노사갈등에 대해 진중하게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사양측의 입장과 제안을 청취, 검토한 복기왕 위원장은 "결국 노사 불신의 골이 깊어져 갈등이 심화된 것 같다"며 "본협의회가 법적권한이 있는 해결기구는 아니지만 사회적책임의식을 갖고 기초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역의 노 · 사 · 민 · 정 대표들로 구성된 본협의회에서 사회적 대화의 다양한 시도를 통해 어느 한쪽의 치우침 없이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권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양승철위원(고용노동부 천안 지청장)은 "갈등해결을 위해 지청차원에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노사 양측 간 현실적 대화의 창구가 부족하다. 노사민정 차원에서 노사 양측과 대화를 시도하는게 선행되어야 한다"며 사회적대화의 중요성과 노사민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산시노사민정협의회는 구두성명으로 사업장내 폭력이 발생하면 절대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노사 상호간 아무 조건없이 정상화를 한 후 대화와 타협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으로 8월1일 이전까지 어느 한쪽의 치우침 없는 평화적 해결을 위해 서둘러 노사양측에 만남을 주선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고 어느 한쪽이 만남을 거부하면 다시 회의를 소집해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아산=리량주 기자

직장인 10명 중 7명 '휴가 때도 못 쉬어'

휴가 중 업무연락 받아 69.7%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휴가 때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직장인 1,073명을 대상으로 '휴가 중 업무연락 받은 경험'을 조사한 결과, 69.7%가 '받아본 적 있다'라고 답했다.

기업 형태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이 78.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소기업(69.4%), 중견기업(67.4%)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직급별로는 임원급이 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과장급(86.8%), 부장급(81.6%), 대리급(81.4%), 사원급(55.4%)의 순이었다.

연락을 받은 상대로는 단연 '상사'(74.1%,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동료'(39.6%), '거래처'(26.2%), '고객'(16.7%), '부하직원'(16.6%), '유관기관'(7.9%)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연락에 대해서는 '무조건 받았다'는 응답이 69.1%였으며, '골라서 받았다'는 답변은 26.7%, '받지 않았다'는 사람은 4.1%였다.

휴가 중임에도 연락을 받은 이유로는 '긴급한 일이 생긴 것 같아서'(52.6%,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다른 동료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서'(31%),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해서'(30.3%), '복귀 후 추궁 당할 것 같아서'(27.5%), '내가 아니면 처리 못할 것 같아서'(27.1%),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19.8%), '특별히 받지 않을 이유가 없어서'(17.2%) 등으로 조사됐다.

연락이 온 이유 1위는 '업무 관련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68.5%, 복수응답)였다. 이어, 긴급한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53%), '내 담당 업무를 시키기 위해서'(23.7%), '긴급 이슈 발생을 알리기 위해서'(19.8%), '개인적인 부탁을 하기 위해서'(4.7%)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은 업무연락은 업무 처리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았다. 실제로 86.8%는 휴가 중에도 직접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었으며, 45%는 회사에 출근까지 했다고 응답했다.

사람인의 임민욱 팀장은 "업무로 노심초사하며 보내는 휴가는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이게 할 수 있다."라며 "휴가 중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해야 복귀 후에도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만큼 업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편히 쉴 수 있도록 휴가자에 대한 연락은 최대한 삼가는 문화가 정착되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복 기자

전자결재시스템 메모 보고 활용으로 업무 효율성 높여

市, 불필요한 행정낭비 줄이고 보다빠른 행정 서비스 제공

공직자들 대부분은 업무보고를 위해 상급자에게 대면보고를 하기 위해 몇십분에서 때로는 몇시간씩 기다리던 경험을 가지고있다.

특히 산하기관의 경우 각종 업무등을 보고를 하기위해 시청을 방문하여야 하며 최소 2-3시간을 소비 하여야 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시간적 낭비가 문제점으로 지적 되왔다.

이에 대전시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메모보고 기능을 유용하게 활용하여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줄이고 시민에게도 보다빠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메모보고는 담당자가 결재과정 없이 직접 보고하고, 수신자(시장, 국장, 과장)를 지정하여 개인별로 보고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메모보고로 작성된 내용은 공문서에 준하여 관리되고 있어 공문서 외의 업무 소통과 보고 기능으로 활용되고있다.

따라서, 불필요한 문서생산을 억제하고 신속한 보고가 가능하며, 꼭 필요한 수신자를 지정하여 명확한 담당자 지정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행정업무의 효율화에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다.

메모보고는 문서 담당자에서 최종 결재까지 처리과정 업무의 착수진행 완료에 이르기까지 의사결정의 전과정이 기록으로 관리되고 있어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확보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산하기관과 연계한 소통 정보시스템을 통해 상호소통과 협업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줄일수 있는 장점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시에서 생산 · 처리되는 메모보고 건수는 2015년 6만2758건으로 월평균 5230여건으로 금년에도 매월 5000여건의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 직원이 상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행정업무에 필수적인 기능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영호기자

2016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 창작가요제

세한대 실용음악학과 본선 진출

세한대학교(총장 이승훈)는 실용음악학과 학생들이 최근 전주 MBC에서 열린 '2016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 창작가요제' 최종예선에서 본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 창작가요제(이하 창작가요제)'는 경연 무대에서 순수 창작곡으로 실력을 겨루며, 새로운 얼굴의 싱어송라이터를 꾸준히 발굴해 오고 있으며, 총 상금 3000만원으로 음악을 사랑하는 아마추어 뮤지션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대회는 총 310팀이 참가해 세 차례의 치열한 예선을 거쳐 세한대 실용음악학과 '스플래쉬' 팀을 포함한 최종 13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세한대 '스플래쉬' 팀은 실용음악학과 이용석, 장재성, 김지웅, 김상아, 김동영, 최진영, 이명진 학생 등이 참여하고 있다.

스플래쉬(splash)팀은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널리 전파하고 싶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번 창작가요제에서 선보인 스플래쉬팀의 <어리둥절해>는 스마트폰을 연인에 비유해 스마트폰 없이 못사는 현대인을 풍자한 곡으로 복고풍의 펑키 리듬으로 편곡했다.

이번 창작가요제 본선무대는 오는 8월 5일 전주종합경기장에서 펼쳐질 예정이며, 프로듀스101의 I.O.I, 바비킴, DJ DOC, DJ SODA 등 K-POP, SOUL, 힙합, EDM을 대표하는 가수들이 참여한다.

당진=최근수 기자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서 수여식

안전보건공단, 대한송유관공사 대전지사 등 9개사

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정성훈)는 지난달 29일 대전본부 대회의실에서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대한송유관공사 대전지사 등 9개사에 대한 무재해목표달성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무재해를 달성한 사업장은 대한송유관공사 대전지사 12배, 메인테크플랜트(주)한화토탈 대산현장 5배, 대전시설관리공단 하수처리장 4배, 유한기술(주)서산지사-한화토탈 단가도급공사 3배, ㈜대일이노텍 2배, 롯데건설(주)현대케미칼 MX Project 2배, 대림산업(주)한국타이어 Central R&D Center 1배, 계룡건설산업(주)세종2-2생활권L2블럭 공동주택공사 1배, 현대엔지니어링(주)서산 테크노밸리아파트 신축공사는 1배를 달성했다.

인증서 수여와 함께 무재해 달성에 공이 큰 유공직원에 대해서도 표창장을 수여했다.

「무재해 목표달성 기록인증」이란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공단의 확인을 거쳐 기록을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정성훈 본부장은 "대한송유관공사 대전지사의 무재해 우수사례가 사업장에 전파되어 우리 지역에 안전문화가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병배 기자

●동 정●●●

주간 업무회의

박용갑 중구청장= 1일 오전 8시 30분 구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주간 업무회의'에 참석.

함께 행복한 서구아침 행사

장종태 서구청장= 1일 오전 9시 서구청 대강당에서 '함께 행복한 서구아침 행사'에 참석.

市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지하차도 개통

지역 개발여건 마련 · 도시균형발전 기여

대전시(시장 권선택)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인동지하차도 확장과 은어송 지하차도 신설 공사를 최근 완료했다.

인동지하차도는 대전과 옥천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로 차량 통행이 매우 빈번하고 교통정체가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구간이었으나,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되고, 주변도로가 정비됨으로써 교통 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은어송(판암제2) 지하차도가 신설됨에 따라 판암동에서 가오동 (동구청)과의 통행거리가 단축되었으며 현재 시공 중인 측면도로와의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 인근 주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와 교통 환경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김은석 균형발전과장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영일 이사장은 "오랜 공사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하여 주신 시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대전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인동지하차도와 은어송(판암제2)지하차도가 완료되어 주민 통행 불편 해소는 물론 장기간 침체됐던 주변 지역 개발 여건 마련과 시 전체의 도시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대덕구-중국 이우시 국제교류

양 도시 간 실질적 경제교류 활성화 방문

중국 외사 및 교무판공실 황위용 주임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이우시 대표단이 지난달 29일 대덕구를 방문했다.

이는 지난해 박수범 대덕구청장이 제17회 한 · 중 · 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개최 시 이우시를 방문하여 경제교류 확대 방안 논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양 도시 간 실질적인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문이다.

이날 대덕구는 대표단과 접견하고 앞으로 양 도시 간 상호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한 우호교류협약 체결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대표단은 대덕구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경제교류 확대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아모레퍼시픽 대전공장, 라이온켐택 등 대덕구 산업단지 생산공장을 방문했다.

박수범 구청장은 이번 방문과 관련하여 "대덕구에는 대전산업단지 및 대덕산업단지가 입지해 있는 경제 · 산업도시로 중국과의 활발한 경제교류가 필요하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중국 진출을 위하여 다양한 경제교류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지역에너지절약사업 돋보여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대전예술의전당과 동부여성가족원 등에서 진행된 금년도 지역에너지 절약 시설 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하여 공공시설 내 냉난방시설 개량, 폐열회수 시스템 구축, 가로등 제어장치 도입 및 고효율 조명 교체 등 에너지 소비 합리화 제고 위한 과제들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올해에는 국 · 시비 5억 5000만 원을 들여 대전예술의전당 보일러 및 동부여성가족원 가스직화식 냉온수기 교체사업을 진행하여 연간 11만5542kwh 전력(4인 기준 24개 가구 사용량)과 5400만 원의 공공요금 절감효과를 도모했다.

시는 지난 2010년 이후 국 · 시비 190억 원을 들여 지역 내 특성 있는 에너지절약사업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 하고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 실천해 왔다.

시는 한밭도서관 공기조화기 교체, 대덕구 청소년 수련관 폐열회수장치 설치 등 "시설개선 22개 사업" 및 도시철도 1호선 친환경 LED 교체 등 "고효율 LED 교체 20개 사업"을 통해 연 1070만769kwh의 전력과 15억 5000만 원의 공공요금 절감효과를 도출했다.

특히, 에너지 절약량은 지역 내 4인 기준으로 2,229개 가구 사용분과 같고, 이산화탄소(CO_2) 배출 저감을 통해 20년생 소나무 2400만 그루를 심은 것과 동일한 효과도 동시에 창출했다.

시 박장규 에너지산업과장은 "심화되는 기후변화 위기 가운데 시 에너지 자립향상 위한 시민들 관심과 참여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시민 편익 큰 사업 중심으로 신규투자를 발굴하고 동 지역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지역 내 민간 기업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업무시설 204개소 소방특별조사

대전시 소방본부(본부장 전병순)는 공공기관, 금융업소, 오피스텔 등 다수의 이용자가 상시 거주 · 사용하는 업무시설의 화재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1일부터 2주 간 업무시설 204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소방특별조사에서는 ▲ 소방시설 정상 작동 확인 ▲ 비상구 · 피난계단 등 긴급대피로 유지관리 사항 ▲ 소방계획서 작성, 자위소방대 적정 조직 여부 ▲ 피난대피계획 수립 및 실제 교육 · 훈련 실시내용 점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여름철 전력 성수기 정전사태(Black-out)를 대비하여 비상전원설비 정상 작동 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유사시 비상전력복구로 소방시설 작동 공백의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공공기관 등 업무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으로 평상 시 안전시설 유지관리 및 관계자의 안전에 대한 의식 확립이 중요하다"면서 "철저한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화재 및 인명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주민 만족도 높여

동구, 7월 말 현재 427명 신청 · 이용 결실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올해 3월 말부터 처음 시행에 들어간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가 주민들의 호응과 관심 속에 상당한 이용실적을 거두며 순항하고 있다.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출생신고 시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양육수당 및 출산장려지원금 신청, 공공요금 감면 등 출산과 관련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자 중심 통합서비스를 말한다.

구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가 시행 이후 7월 29일 현재까지 427명이 신청 · 이용한 가운데, 제도 시행 전 서비스별로 신청서 작성과 구비서류 제출 등을 진행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게 되면서 주민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통합신청을 통해 출산 · 육아 등과 관련, 당연 제공되는 각종 정부지원서비스에 대한 지원 신청이 누락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긍정적 효과도 낳고 있다고 구는 덧붙였다.

한편, 구는 혼인신고를 위해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중심으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대한 집중홍보와 함께 임산부 영양제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영유아 예방접종 사전알림서비스 제공 등 각종 보건서비스에 대한 안내도 진행하고 있다.

임재홍 기획감사실장은 "국민주도의 맞춤형 양방향서비스 제공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3.0 가치 구현을 위해 시행 중인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가 직원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함께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편리하고 실용적인 주민맞춤형 서비스 발굴 ·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호 기자

대전시립박물관, '누구개?누구냥?' 5일부터 개최

개-고양이 주제로 체험전시

대전시립박물관(관장 류용환)이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5일부터 어린이 체험전 '누구개? 누구냥?'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개와 고양이'로 반려동물이 된 이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이야기의 형식을 빌려 두 살짜리 수컷 개인 '장군이'와 4개월 된 아기 고양이 '벼리'라는 캐릭터를 개발, 그 둘과 가족이 된 한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전시를 구성한 점이 흥미를 끈다.

전시를 기획한 김보배 학예연구사는 "단순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개와 고양이를 소재로 삼았다는 점보다는 이제는 또 하나의 가족으로 말해지는 반려동물에 대해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책임과 윤리의식 그리고 생명에 대한 존중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획의도 때문인지 박물관에서는 동물치료와 보호 등의 사회활동을 하고있는 두 명의 수의사를 초청, 8월 6일과 13일 '반려 동물과의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한 오픈 기념 특별강좌를 연다.

자칫 가볍게 흐를 수 있는 소재를 그 자체가 가진 재미와 흥미를 잃지 않은 채, 묵직한 주제로 연결시킨 박물관의 기획과 시도가 시민들의 어떤 평가를 받을지 기대된다.

전시는 내년 2월 28일까지 계속되며, 어린이들의 원활한 관람과 체험활동을 위해 단체의 경우 예약접수를 통해 입장 할 수 있다.

단체관람 예약은 박물관 홈페이지(www.museum.daejeon.go.kr)에서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대전시립박물관(☎042-270-8600/8614)으로 하면 된다.

이영호 기자

회덕농협-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성산2리 마을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협약 체결

회덕농협(조합장 김영국)은 지난 29일 화촌농협(조합장 사재문) 회의실에서 성산2리마을과「또 하나의 마을만들기」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회덕농협 임직원 및 내부조직장 40여명과 성산2리마을 주민과 화촌농협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덕농협 김영국 조합장을 성산2리마을 명예이장으로 위촉하고 도농상생을 위한「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협약식 행사를 가졌다.

또한, 회덕농협은 화촌농협에 계 도 · 농 상생자금 3억원을 지원, 도 · 농 농협간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운동은 기업 CEO나 단체장 등을 농촌마을의 "명예이장"으로 위촉하고 소속 임직원을 "명예주민"으로 참여시켜 농촌일손돕기, 농산물 직거래 및 농촌체험 등 해당 농촌마을과 자율적으로 교류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회덕농협은 성산2리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촉 협력과 농촌체험 교류를 확대해 도시와 농촌이 서로 하나로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 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국 조합장은 "화촌농협 관내 성산2리 마을과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협약식을 계기로 또 다른 농촌 마을과도 협약체결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새로운 모델로 자리를 잡고 도시농협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송병배 기자

장애인고용공단-선병원 협약체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추진

의료법인 영훈의료재단 선병원(이사장 선두훈)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박승규, 이하 공단)과 함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진한다.

공단과 영훈의료재단 선병원은 지난 29일 오후 2시 선병원(중구 소재) 회의실에서 영훈의료재단 선병원 이규은 경영총괄원장, 공단 박관식 고용촉진이사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식'을 가졌다.

1966년 대전에 설립된 영훈의료재단 선병원은 900병상 규모로 대전시 종합병원 환자만족도 1위로 선정되는 등 대전 · 충남지역을 대표하는 종합병원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영훈의료재단 선병원은 사업계획을 확정해 '16년 하반기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 중증장애인을 위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공단 박관식 고용촉진이사는 "지역사회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나눔과 봉사로 헌신해온 선병원이 의료법인 중 장애인 고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에 모든 역량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영훈의료재단 선병원 이규은 경영총괄원장은"이번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으로 중증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과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장애인에게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로 2008년 도입 이래로 삼성, LG, 포스코 등 주요 기업에서도 참여하는 등 지난 6월말 기준 총 46개가 운영 중이며, 고용 장애인은 총 1980명(중증1202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번 영훈의료재단 선병원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은 대전지역 의료법인 최초 설립사례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동종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작업시설 설치 등에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고, 취업 알선, 고용관리 컨설팅,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자회사 장애인 고용인원을 모회사 고용 인원으로 산입(부담금 감면 가능), 표준사업장의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송병배 기자

건강 · 문화체험의 날 운영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가 금연거리인 시청역 3번 출구에서 10월 말까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건강 · 문화체험의 날'을 운영한다.

구는 지난해 7월 지정한 금연거리의 빠른 정착과 주민 의식 전환을 통해 '금연거리를 건강의 거리, 구민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은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 ▲금연 · 절주 상담 ▲혈압 · 혈당 · 악력 및 일산화탄소 측정 ▲가상음주체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금연거리 인근에 밀집한 학원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평생금연 · 절주서약서 작성, 금연골든벨 운영 및 흡연학생 금연상담을 통해 청소년 흡연 예방활동과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이밖에도 서구는 금연거리 보행로에 사계절 화단을 조성,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이 참여한 금연 · 절주, 건강주제 그리기 대회 작품을 전시해 건강 관련 메시지도 전하고 있다.

또, 금연거리 바닥에 노면용 스티커를 10m 간격으로 부착하고, 금연거리 내 승강장 5개소에 금연알리미를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로 금연동참 분위기 및 간접흡연 없는 쾌적한 거리 조성에 힘쓰고 있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서구의 번화가이자 학원 밀집가인 금연거리가 정착돼 주민이 함께 누리는 건강한 거리로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daejeontoday.com

"남은 음식 포장해 가세요"

유성구, 남은음식 포장용기 · 종이가방 보급
모범음식점 등 155개소 13000세트 배포

큰맘 먹고 외식하고 남은 음식이 아깝기는 이유야 다르겠지만 업주나 손님이나 매한가지일 것이다.

손님은 '조금만 시킬걸' 하는 아쉬움이 들고, 업주는 만만치 않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부담스러울 것이다.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남은 음식물 포장용기를 보급하는 음식물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관내 모범음식점과 나트륨 줄이기 운동에 동참하는 음식점 155개소를 선별해 포장용기와 종이가방 13,000세트를 배부했다.

이를 통해 업소는 남은 음식물의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손님은 남은 음식을 위생적인 포장용기에 담아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남은 음식 싸주기, 싸가기 운동의 지속적인 홍보로 낭비 없는 음식문화의 분위기가 조성돼 건강한 외식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장종태, 부패방지국민운동총聯 전국 명예회장 선임

부패방지 문화 확산 공로 인정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지난달 29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회(회장 박승한) 전국 회장단 및 대의원 워크숍에서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회 전국 명예회장으로 장종태 서구청장이 선임됐다고 밝혔다.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회는 부패방지 국민운동을 통해 국가경쟁력과 청렴도를 높여 맑고 깨끗한 국가를 만들고 행복한 세계를 열어가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부패방지 문화를 확산시키는 범국민운동단체이다.

이 자리에 장종태 서구청장은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청렴한 분위기를 확산시켜 구민이 체감하는 깨끗한 청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봉관 기자

공주시 도농교류 활성화 잰걸음

공주나드리센터, 업무협약 (MOU) 체결로 민간네크워크 구축나서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관광도시의 입지를 농촌에까지 확장하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품은 관광도시의 위상을 다지기 위해 민간네트워크 구축으로 도농교류 활성화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공주나드리센터(센터장 정석호)는 27일 ㈜디에스교육컨설팅을 시작으로, 28일 ㈜문화상상연구소(대전소재), 29일 금강아트센터(공주소재)와 함께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에 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주나드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강아트센터는 학교대상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관련 교구 · 교재 제작 및 개발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문화상상연구소는 아동, 청소년 대상 체험교육 및 맞춤형 콘텐츠 활용은 물론 대전시 학교, 단체와의 연계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디에스교육컨설팅은 지역개발, 농업농촌 6차산업, 귀농귀촌 등 교육 및 컨설팅을 주로 하는 업체로 공주시 농촌체험 및 관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석호 공주나드리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각 업체 간 체험 노하우의 획득과 지속적인 학생유치를 통해 체험관련 서비스 개선, 소득 증대 등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관계 업체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약과 실행을 통한 마을과 농장의 서비스 개선, 소득 증대 방안을 강구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흥미진진 공주나드리센터는 공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주시와 공주나드리협동조합이 설립한 중간지원조직으로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를 진행하는 등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체험농장의 활성화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공주=정상범기자

순천향대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참가

순천향대(총장 서교일)는 28일~ 31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A홀에서 열리는 '2017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 참가해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입학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학관계자는 수시모집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박람회장에서는 입학사정관들이 직접 나서서 수험생들이 수시모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난해 입시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1:1 상담을 진행하면서 충분한 입학정보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상담을 마친 염민재(여, 강원도 양구군 양구여자고 3학년) 학생은 "특수교육분야로 진로방향을 정하고 특수교육과에 대한 교육과정부터 장학제도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상담으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1학년때는 언어치료사를, 2학년때는 비영리단체와 차상위계층을 돕는 사회복지분야로의 진로를 고민하다가 특수교육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자신의 포부를 털어 놓았다.

윤장혁 순천향대 입학팀장은 "예년에 비해 지원학과에 대한 정보는 물론 취업과 직접 연계된 학과를 선호하는 상담이 훨씬 많아진 것도 박람회장을 찾는 수험생들의 특징이다"라고 귀띔했다.

올해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사업 결과가 발표되면서 수시 전형에서도 변화가 발생했다. PRIME사업에 선정되면서 이 사업에 맞춰 특색있는 학과를 신설했기 때문이다. PRIME 신설학과들은 학교에서 집중 육성하는 점과 함께 특성화된 융복합 학과와 장학제도가 충분히 마련돼 있어 수험생은 물론 학부모들에게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순천향대는 201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총 모집인원의 70.2%인 1,771명의 학생을 선발하며 원서 접수는 9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리량주 기자

하계 휴가철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도공, 안전띠 착용 · 졸음사고 예방등

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본부장 이상준)는 지난 29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신탄진휴게소(서울방향)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속도로순찰대 제2지구대, 교통안전공단 중부지역본부 등 4개기관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하계 휴가철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휴가철 행락차량 대상 전좌석 안전띠 착용 홍보물품 배부와 화물차 졸음사고 예방 및 후부반사판 무상교체 행사도 실시했다.

도공 대전충청본부 관계자는 "하계휴가철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증가에 따라 고속도로 이용 고객은 교통안전 의식 고취 및 화물차 졸음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송병배기자

8월의 가볼만 한 곳 '청주에서 만난 휴식'

코레일 오송역, 청주시 청원연꽃마을 농촌체험상품 출시

[대전투데이 대전=송병배기자]코레일 대전충남본부 오송역(역장 이두희)은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한국관광공사 세종충북협력지사와 협력해 한국관광공사에서 8월의 가볼만 한 곳으로 선정한 '청원연꽃마을 농촌체험상품'을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운영하며, 청원 연꽃마을에서 연잎밥 만들기 체험을 한 후 연잎밥 한정식으로 점심식사하고 농 · 특산품 직거래 판매 농가와 청주 육거리 전통시장을 자유투어하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계버스비, 체험비, 중식비를 한국관광공사 세종충북협력지사에서 육거리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1인당 5천원)으로 지원해 왕복열차운임, 버스비, 체험비, 식사까지 포함한 패키지 상품으로 서울출발 상품가격은 3만1000원으로 저렴하게 농촌체험상품을 이용할 수있다.

이두희 역장은 "도시와 농촌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농촌체험마을에게는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착한 체험상품을 만들기 위해 상품을 개발하게 됐다" 며, "적극 홍보해 농촌과 도시가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통화정책 경시대회 충청지역 예선대회 열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본부장 김한수)가 지난 28일 개최한 '2016 통화정책 경시대회 충청지역 예선대회'에서 충북대학교 에스코트팀이 최우수상을, 충남대학교 통화5.0팀이 우수상을, 충북대학교 plaE팀, 연합(서원대 · 충북대) 메비우스팀, 한밭대학교 HERB팀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송병배기자

'구기자' 한약재 시장을 넘어 일반식품시장으로

청양군 (가칭)구기자라면 시식회 열려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구기자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적 프로젝트로 바쁜 직장생활과 잦은 음주문화에 찌든 20~50대 직장인들을 타깃으로 한 구기자라면을 선보였다.

군은 지난 28일 군청 구내식당에서 부자농촌지원센터 제품개발연구소와 바이오식품연구소(소장 안태영)가 공동연구 · 개발한 가칭 '구기자라면' 시식회를 열고 자체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몸에 좋은 인스턴트 식품', '건강한 해장라면'이라는 두 가지 테마로 개발된 구기자라면은 구기자 농축액과 구기자 분태를 면과 후레이크 스프에 첨가해 기존의 부정적인 인스턴트 식품의 라면 이미지를 탈피했다.

또한 청양고추 100% 사용으로 청양의 대표 농산물인 고추와 구기자를 모두 담아 건강한 매운맛을 내는데 더욱 집중했다.

이날 선보인 구기자라면 샘플은 자체 관능평가를 마친 총 3종으로 배합비에 따라 매운맛, 진한맛, 순한맛으로 선호도 조사 결과 매운맛을 강조한 샘플이 가장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

안태영 바이오식품연구소 소장은 "구기자의 향, 맛, 매운맛 정도, 구기자 후레이크 스프 함량 등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됐다"면서 "선호도 조사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성공적인 제품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황상철 (재)청양군 부자농촌지원센터 센터장은 "이번 구기자라면의 개발은 한약재 시장의 원료로만 사용돼오던 한계를 벗어나 일반식품시장의 원료로써 사용 할 수 있는 점을 부각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양=정상범기자

DT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등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9 태동빌딩 7층
www.daejeontoday.com

창립총회 개최공고

대전로하스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가칭)의 창립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와 조합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빠짐없이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일 시 : 2016년 08월 18일 목요일 19:00~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13 파이낸스타워 17층 리오웨딩(Tel: 042-487-8777)

◆ 의 안

가. 정관 및 규약 확정
나. 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사업계획 예산확정
다. 임원선출
라. 기타 총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사항
▷기타사항

2016년 08월 01일
대전로하스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발기인회
발기인 대표 조 재 응

한국폴리텍대전캠퍼스, 제3회 전국 고교생

모바일로봇 기술경진대회 '성료'

전국 10개 고교, 15팀 30명의 학생이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에서 자웅을 겨룬 '제 3회 전국 고교생 모바일로봇 기술경진대회'가 성대한 막을 내렸다.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가 주관하고 ㈜알엠텍이 협찬한 이번 대회는 전국 전문계고교 로봇 관련 학과에 모바일로보틱스 기술전수를 위해 진행됐다. 전국 각지에서 대전으로 몰려온 30명의 학생들은 22시간 동안 모바일로봇을 움직이기 위한 프로그램 설정과 로봇제작에 열과 성을 다했다.

경진대회 최고의 영예인 고용노동부 장관상(대상)은 충북반도체고 김병진 · 윤필우 학생팀에게 돌아갔다. 이어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상(금상)은 경남공업고 김민중 · 이정현 학생팀, 학장상(은상)은 서울로봇고 이종욱 · 한태혁 학생팀과 남원용성고 임원진 · 조현우 학생팀이 각각 수상했다.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학장 서규석)은 폐회사를 통해 "참여한 학생들이 2박 3일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열정과 성의를 보이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경진대회에서 기량을 펼친 학생들이 전국대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내 한국 로봇 산업을 이끄는 영재가 되도록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불법 · 불량 수입물품 차단 조기경보체제 구축

관세청-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국민건강과 안전 보호 위해 협력하기로

관세청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29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국민건강 · 안전 위해물품의 불법반입 · 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세청의 단속 사례와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피해사례 등 정보공유, 공동 캠페인 · 홍보활동 전개, 소비자 교육강좌 운영 협조 등 국민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금번 업무협약 체결로, 불법 · 불량물품의 국내유통 전(前) 반입 차단은 물론, 이미 국내 반입된 경우에도 신속한 경로추적을 통해 효과적인 유통 단속 및 조기 리콜 조치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적극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천홍욱 관세청장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자혜 회장 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 단체 회장단 8명이 참석하였다.

양 기관은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 공감하고, 지능화 · 첨단화되어 가고 있는 불법 · 불량물품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수출입 최일선에서 불법물품 반입차단 업무를 수행하는 관세청과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소비자단체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불법물품의 반입차단과 유통근절을 위해서는, 대국민 최접점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소비자단체와의 정보공유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관세청과 소비자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소비자 권익은 물론 국민건강과 안전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의 정부 3.0을 구현하는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약서 체결에 이어 관세청의 주요정책 및 단속사례를 소개하고, 국민건강 · 안전 위해물품의 국내반입과 유통 차단을 위한 공동대응 방안 등 협력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불법 수입물품으로 인한 국민 건강 · 안전 위해요소를 발굴, 단속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봉관기자

태안소방서, 다중이용

업소 우수업소 공모

태안소방서(서장 김오식)는 오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한달간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2016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을 위한 신청을 공모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는 자율안전관리 환경조성과 관계자들의 안전의식 고취 및 소방 안전환경 저변확대를 위해 모범 영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를 추진해 재해로부터 안전기반을 조성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 조건은 최근 3년간 소방 · 건축 · 건기 · 가스 관련 법령 위반과 화재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며, 종업원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간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태안=김정한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 최초 주상복합 설계공모' 공고

행복도시 최초로 시행…11월 3일 최종 당선작 발표 예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본부장 홍성덕)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세종시 어진동(1-5생활권) 일대 주상복합 3개 구역(총 1,742세대)에 대해 설계공모를 7월 29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행복도시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주상복합 설계공모는 이달 17일까지 응모신청을 접수받은 뒤 오는 10월 31일 응모작품 접수 이후 11월 3일 행복도시 디자인 누리집(홈페이지, http://happycity2030.or.kr)을 통해 최종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행복청은 가격입찰만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던 이전의 주상복합용지 공급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비싼 토지 가격을 지불하는 사업자 대신 높은 수준의 디자인과 주거 · 상업환경 계획을 제안하는 업체에게 주상복합 용지를 공급해 고품질의 주상복합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대상 부지가 갖추고 있는 정부세종청사와 방축천 · 제천 인근의 도시 핵심 입지에 걸맞은 명품 주상복합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남대학교 신현준 교수를 전문위원(MA)으로 위촉, 도시 중심부의 상징성을 갖는 입면 · 친환경적 주거환경 · 상업시설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세종시 어진동(1-5생활권)만의 특화 설계지침(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특히, 이번 세종시 어진동(1-5생활권) 주상복합은 소규모 필지별로 공급되어 기존 공동주택 중심의 경관 위주로 조화를 이루었던 지금까지의 주상복합과는 달리, 여러 개 필지가 단지를 이루어 공급됨에 따라, 주상복합단지가 도시 경관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각 필지별 공모 설계지침에 따르면, 에이치5(H5)는 중심행정타운의 관문으로 상징성 확보를 위해 탑상형 주동의 수직적이며 간결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인접 방축천변 특화상가와 연계하여 상업시설 활성화를 유도한다.

에이치6(H6)은 간선급행버스(BRT)도로, 학교 등 외부환경에 대응하여 단순한 입면의 복합탑상형 주거동을 제안하고, 청사, 하천 등 개방된 주변 조망을 고려하여 복층인 하늘채(펜트하우스) 등 특화 평면설계를 도입한다.

에이치9(H9)는 공원, 제천 등 우수한 자연여건과 곡선형 대지형상에 순응하여 물결형상의 새로운 주거동 디자인을 제안하고, 특히 주거동 중층부에 계단식 정원주택(테라스하우스) 배치로 특화된 주거공간을 계획한다. 세종=이정복기자

온천천, 중국 하남성 벤치마킹 방문

하남성 주택도시건설청 공무원 등 6명, 아산시 방문

지난 28일 중국 하남성 주택도시건설청 공무원 등 6명이 아산시 온천천 생태하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아산시 온천천 생태복원사업을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해 중국 하남성 환경사업 시행에 참고하고자 방문한 것으로 사업 브리핑을 청취한 후 실개천, 경관폭포, 물순환생태주차장 등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 시설물에 대한 견학을 꼼꼼히 실시했다.

하남성 관계자는 "중국에서도 최근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큰 골칫거리로 오늘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대표적 생태하천으로 자리매김한 온천천을 둘러보고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며 "귀국 후 온천천 생태하천 등 국내의 우수한 시설물을 하남성 환경사업에 접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당진시, 농경지 침수피해 현장 점검

정병희 부시장 침수현장 점검, 피해현황 정밀조사 지시

지난달 29일 장맛비로 인해 호우경보가 발효되며 오후 1시까지 평균 강수량 108.3㎜를 기록한 당진 지역에서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가운데 당진시가 현장점검을 통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당진시는 지난 7월 29일 오전 동안 내린 비로 당진시 순성면과 우강면 등 7개면 35농가 26.5ha의 농경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가 컸던 지역은 이날 오전에만 149㎜의 기록적인 폭우를 기록한 순성면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는 남원천이 범람해 인근 양유리와 나산리 일대 7ha의 농경지가 침수피해를 입었다.

이에 당진시가 비가 그친 오후 피해 현장을 직접 돌며 피해현황 파악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으며, 정병희 부시장이 직접 순성면 농경지 침수현장과 시설하우스 3동이 침수된 우강면 원치리 딸기 재배농가를 방문해 피해현황을 파악한 뒤 관련 부서에 정밀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향후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정밀조사를 벌여 정확한 피해규모와 내용을 파악한 뒤 피해상황에 따라 피해 농가에 시설복구비와 대체작물 재배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병희 부시장은 "기습적인 폭우로 인근 하천이 일시적으로 범람해 농경지 침수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농경지는 금방 물이 빠져 피해가 크지 않지만 농업을 생업으로 삼고 계신 농업인들의 피해가 크지 않도록 시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충남도, 지난해 보다 취업자 늘고 실업률은 떨어졌다

충남 고용 · 노동 리포트 7월호 발간…생산가능인구도 늘어

충남도 내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모두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노사민정협의회와 충남고용네트워크가 최근 발간한 '충남 고용 · 노동 리포트' 7월호 '이달의 충남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도내 생산가능인구는 198만 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191만 4000명에 비해 3.6% 증가한 규모다.

또 경제활동인구는 130만 4000명으로 지난해 127만 9000명보다 2.0% 늘고, 취업자도 지난해 123만 4000명에서 2.0% 증가한 125만 9000명으로 조사됐다.

취업자 중 남성은 76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 명이 증가한 반면, 여성은 지난해 50만 4000명에서 5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지난해 3.5%에서 3.4%로 1%p 떨어진 것으로 계산됐다.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지난해 63만 5000명에서 67만 9000명으로 4만 4000명 늘었는데, 가사와 육아로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여성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경제 활동 참가율은 지난해 66.8%에서 65.7%로, 고용률도 695%에서 68.7%로 소폭 감소했다.

도 관계자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고용률이 조금 떨어지고 비경제활동인구는 늘었으나, 도의 국내 · 외 기업유치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충남 고용 · 노동리포트는 도내 고용 · 노동 관련 소식을 전하고, 정책 및 쟁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고용 · 노동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만든 월간지다.

김정한기자

충남새마을회, 공주의료원과 MOU체결

지역의료보건 환경개선에 협력

충청남도새마을회(회장 임동규)는 공주의료원(원장 김영배)과의 MOU 체결로 지역사회 발전 및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 상호 유대 강화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9일 낮 12시 새마을운동당진시지회에서 임동규 충청남도새마을회장 및 김영배 공주의료원장과 15시군 새마을지회장 등 30여명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 체결로 충청남도새마을지도자 17만명이 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통해 지도자들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력으로 지역사회 봉사자로서 더욱 봉사활동에 매진 할 수 있는 협력기관을 가졌다.

임동규 회장은 "항상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에게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력관계를 설정하게 되어 든든하고, 앞으로 행복충남 만들기와 가정새마을 운동을 추진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주민손길로 실개천 살리기 운동

아산시 음봉면 동암1리 중리마을, 정화활동 펼쳐

아산시는 지난 28일 음봉면 동암1리(이장 김용선) 중리마을에서 실개천 살리기 주민 다짐결의와 정화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영동대학교, 시의원, 음봉면, 시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여해 실개천을 옛 모습으로 되돌리자는 다짐 결의 후 물길을 트기위한 잡풀제거, 마을과 하천에 투기된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등을 청소하며 정화활동을 펼쳤다.

아산=리량주기자

'하이트 원샷 웨이브 페스티벌'도 부산행!

해운대서 열린 '하이트 원샷웨이브 페스티벌' 바캉스족의 뜨거운 호응 얻으며 성공적 진행

하이트의 대규모 원샷 웨이브가 대한민국 바캉스의 메카 해운대 해수욕장을 뒤덮었다.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지난 22일부터 부산 해운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이트 원샷 웨이브 페스티벌'이 바캉스족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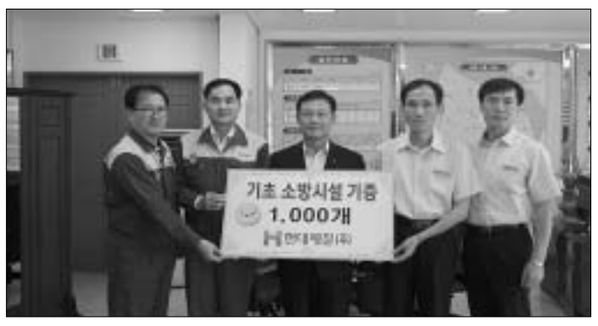
14일 신촌해변에서 송중기와 함께한 하이트 원샷 웨이브를 시작으로, 지난 주말 대천 머드축제에서 펼쳐진 대규모 맥주 원샷웨이브 퍼포먼스가 대한민국 대표 해수욕장인 해운대로 이어진 것. 하이트는 목타는 여름 해수욕장을 찾은 수많은 이들에게 목으로 마시는 '원샷엔 하이트'의 넘어가는 맛을 선물하고 있다.

특히 매년 여름 해운대에서 꼭 방문해야 할 곳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하이트 파빌리온은 넘어가는 맛이 좋아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원샷엔 하이트'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31일까지 목으로 마시는 하이트의 쉽고 가벼운 목넘김과 함께 하이트와 맥주로 파도타는 트릭아트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파빌리온에서는 천연 망고과즙(2.3%)가 함유된 알코올 도수 2.5도의 과일믹스인 '하이트 망고링고'와 3도의 복숭아맛 탄산주 '이슬톡톡' 부스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하이트 파빌리온 인근 노천까페에서는 신촌, 대천에 이어 다함께 목으로 마시는 대규모 '하이트 원샷 웨이브 퍼포먼스'가 30일까지 진행된다. '하이트 원샷 웨이브 퍼포먼스'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목으로 마시는 '원샷엔 하이트'로 목타는 열대야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렸다.

이정복기자

공주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위한 여경 간담회 개최 지난 29일 여경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 내 성희롱예방 및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여경 간담회를 개최했다.



당진소방서, 현대제철(주)로부터 단독 경보형 감지기 1,000대 기증 받아 지난달 28일 현대제철(주)로부터 화재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단독경보형 감지기 1,000대를 기증받았다.

금산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금산경찰서(서장 김의옥)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위해 관내 물놀이 위험지역인 제원면, 부리면, 복수면을 방문해 수상 · 레저업체를 점검하고 안전수칙 등을 설명하고 있다.

공주서, '온누리 안심순찰'로 주민과 소통 · 화합하는 시간 지난 28일 산성시장 일원에서 강복순 공주경찰서장, 오시덕 공주시장 등 유관기관 및 자율방범대, 새마을협의회, 상인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자원봉사자 등 시민 · 협력단체 약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온누리 안심순찰'을 실시했다.

청양소방서, 청양교육지원청 심폐소생술 교육 지난 28일 청양교육청에서 교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생활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서천소방서, 소중한 생명 구한 하트세이버 6명 수여식 29일 서천소방서 별관 대회의실에서 심정지 환자를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를 이용하여 생명을 소생시킨 구급대원 및 펌뷸런스대원 6명에게 하트세이버(Heart Saver) 인증서를 수여했다.

천안서북경찰서, 자율방범대 함께 여성 안심 순찰 실시 지난 28일 저녁 두정지구대, 성거파출소 2개 지역관서에서 서북구 자율방범대원 등 80여명의 지역주민과 함께 여성 불안신고 지역 등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국내 펜션업체 환불규정 업체마다 '제각각'

휴가철 펜션 예약 소비자 주의 필요, 환불규정 업체마다 제각각

휴가철을 맞아 펜션 예약을 했다가 사정이 생기거나 폭우 등 기후변화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이용료 환불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펜션관련 불만의 8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포털사이트 상위에 검색되는 100개의 펜션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환불기준을 지키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으며, 펜션을 운영하는 업체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제각각의 환불기준 등을 정해놓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연맹(강정화 회장)은 6월 27일부터 3주간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순위에 상위 100개의 펜션업체를 대상으로 환불규정을 모니터링 했다. 모니터링한 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숙박업)의 환불 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는 단 한 곳의 업체도 없었다. 홈페이지 상에 환불규정 안내가 전혀 없는 업체가 4곳이며, 96개 업체도 업체마다 제각각 규정을 정해놓고 있었으며 이들 자체규정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해 모두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불규정이 있어도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해 놓은 업체는 13곳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업체가 기본취소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이용료의 10%를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에는 환불기준이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 주중, 주말로 구분되어 있다. 위약금이 가장 많은 성수기 주말의 경우라도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시에는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며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시라도 총 요금의 90%를 공제후 환급 받을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시에도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펜션들이 인터넷 예약을 받으면서 홈페이지에 자체 환불규정을 제시하고 예약시 환불규정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어서 소비자는 속수무책으로 업체의 요구를 따를 수 밖에 없다. 전화로 예약할 경우에는 환불규정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펜션업체들은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펜션 관련 소비자 불만 902건을 분석해 본 결과 예약취소시 환불거부나 위약금 과다요구가 752건으로 83.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펜션관련 소비자 불만을 내용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펜션관련 소비자불만의 대부분이 계약취소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조사대상 100개의 펜션이 모두 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적용해 계약취소나 환불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분쟁해결기준은 해당업체들이 이를 따르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있어 시장환경을 개선하고 소비자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지키도록 강제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분쟁해결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조사대상 모든 업체들이 분쟁해결기준을 지키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정환기자

논산소방서, 여름철 폭염 관련 긴급신고 119로

논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연일 30℃ 이상 치솟는 폭염이 계속됨에 따라 폭염피해로 인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고 폭염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폭염으로 인한 피해 주의가 요구되고있다.

이에 논산소방서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특보 발효에 따른 폭염대응 상황관리 및 예방활동 ▲폭염대응 구급활동 교육 ▲폭염대비 위험물 제조소 등 소방안전관리 강화 ▲폭염대응 구급소모품 및 구급장비 일제점검 등을 추진하고있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법으로는 한낮의 뜨거운 햇볕은 피하고, 충분한 수분과 고른 영양분 섭취, 위생적인 생활 습관 배양, 올바른 냉방기기 사용법 숙지, 충분한 휴식과 무리한 야외활동(운동) 삼가, 위급환자 발생 시 119에 즉시 신고 등이다.

논산=김태선기자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973건 적발

'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8월 1일부터 설치 · 운영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에 대해 1973건을 적발해 126억 4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015년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자의 거래 건 중 다운계약 가능성이 높은 거래 200여 건에 대해서 지난 20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오는 8월 1일부터 설치 ·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1973건을 적발하고 126억 4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205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136건이었으며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377건,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149건, 증빙자료 미제출 62건,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1건, 거짓신고 조장 · 방조 23건 등이다.

위반사실을 적발한 지자체는 다운계약, 업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으며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 ·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국토부는 2015년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자의 거래 건에 대해 검증을 면밀히 실시해 다운계약 가능성이 높아 양도소득세 탈루의혹이 있는 거래 200여 건에 대해서 지난 20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6월 15일부터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돼 있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 매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5주간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67건을 지자체에 즉시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거래신고 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700여 건을 6월 말에 지자체에 통보해 정밀조사토록 했으며 지자체에 매월 정기적으로 통보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도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분양권 다운계약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오고있다.

국토부는 떴다방,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8월 1일부터 설치 · 운영한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는 국토부와 전국 시 · 도 및 시 · 군 · 구에 설치 · 운영하며 불법거래 행위를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내 e-클린센터 신고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민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식을 다운받아 국토부 및 해당 시 · 도, 시 · 군 · 구(토지정보과 등)에 우편, F팩스, 방문 또는 전화 신고할 수 있다.

앞으로 국토부는 분양권 다운계약 및 업계약 허위신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또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분양권 불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결제원의 청약자료를 토대로 과다 청약 · 당첨자에 대하여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위장 전입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는 등 청약 불법 행위에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김태선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3030

전통시장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서산소방서, 동부시장에서 골든타임 확보 위해 실시

서산소방서(서장 김경호) 동부119안전센터는 지난 28일 동부시장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 출동로 확보 훈련과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을 실시해 긴급차량 양보에 대한 중요성을 알렸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구급차 등 소방차량이 시장 내부에 진입해 실제 통행여부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가판과 같은 적치물을 정리하는 등 시장 내 소방 출동로 확보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산=김정한기자

아산경찰, 대형차량 선제적 교통안전 활동 강화

교통사망사고 근절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과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 전개

아산경찰서(서장 김종민)는 교통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과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전개하고 있으며, 관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 동 기간 대비 35%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 대형차량의 난폭운전과 졸음운전 등으로 인해 대형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관내 대형차량의 주요 통행로를 중심으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중이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지정차로 및 적재물 추락방지의무위반, 음주운전, 속도 및 신호위반 등 주요 대형 교통사고 위험행위를 단속 중이며, 최근 7월 22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인근에서 카-캐리어 불법구조변경 5대를 적발했다.

단속과 더불어 상반기 중 기업체 등(종교시설포함, 주 약70회, 상반기 1680회)을 대상으로 11개 지역관서와 교통관리계에서 총 2,378회 28,755명 대상으로 교육하였으며, 100인이상 기업체 100개소, 덤프트럭 업체 31개소, 레미콘 업체 14개소, 버스업체 17개소 등 교통사고 예방 서한문 발송 및 방문 교육을 실시했다.

이러한 대형차량에 대한 단속 및 홍보활동으로 대형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올해 2명으로 전년 동기간 9명 대비 78%의 인명피해가 감소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김종민 서장은 "아산 지역 내 대형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안을 통해 시민의 교통안전 체감도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국립대전현충원, 청렴문화 확산시키고자

보훈둘레길 대나무 숲속 청렴명언길 조성

국립대전현충원(원장 권율정)은 대내 · 외 청렴의지를 널리 표명하고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청렴명언길을 조성했다.

청렴명언길은 대전현충원을 둘러싼 보훈둘레길 중 국가사회 공헌자 묘역을 끼고 도는 빨강길 대나무숲에 위치해 있다.

빼곡히 들어선 대나무숲 사이로 160m에 이르는 둘레길을 따라 백범 김구선생의 애송시, 도마 안중근 선생과 영국의 정치가 토마스 모어의 명언 등 국내외의 인사 15명의 명언과 연설문 등을 패널로 설치해 현충원을 찾는 방문객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지난해 완공된 보훈둘레길은 총 길이 8.2km의 길에 무지개 색을 따라 7개의 구간으로 조성됐다.

둘레길에는 청렴명언길과 함께 보훈샘터, 계곡숲길, 보훈왕벚길, 억새길, 황톳길 등 구간마다 다양한 테마와 볼거리가 가득해 '대전 걷고 싶은 길 12선'에 선정됐다.

송병배기자

직장인 94.7% '계절성 우울증' 겪어

계절성 우울증 겪은 계절로는 더위, 장마 등 불쾌지수가 최고인 '여름' 꼽아

직장인 정모씨(여, 30)는 요즘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짜증이 나고 지친다. 높은 기온과 습도 탓인지 입맛도 없고 불쾌지수도 매일매일 높아지는 느낌이다.

정모씨와 같이 계절적인 흐름을 타면서 우울증상과 무기력증 현상이 나타나는 직장인은 10명 중 9명 이상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벼룩시장구인구직(대표이사 최인녕)이 직장인 713명을 대상으로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는 '계절성 우울증'을 겪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무려 94.7%가 '있다'고 대답했다.

계절성 우울증을 겪은 계절로는 더위, 장마 등 불쾌지수가 최고인 '여름'(33.8%)을 꼽았다. 이어 춘곤증, 무기력, 기력저하 등을 느끼는 '봄'(28.9%), 낙엽, 큰 일교차, 건조한 공기의 '가을'(27.5%), 활동량 부족, 과식, 과수면을 하는 '겨울'(9.9%)의 순이었다.

계절성 우울증을 겪는 가장 큰 이유로는 34.2%가 '계절이 바뀌면서 생기는 신체 면역력 저하'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간이 흐르는 것에 대한 불안감'(33.5%), '계절의 변화에 따른 기온 변화'(18.3%), '일조량의 감소 및 증가'(9.9%), '계절에 따른 체중증가 및 체중감소'(4.2%)를 이유로 들었다

그렇다면 계절성 우울증으로 어떤 증상을 겪을까? 계절성 우울증으로 겪은 증상은 '무기력, 의욕저하'가 35.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 '이유 없이 외롭고 쓸쓸하거나 우울'(28.2%), '이유 없는 짜증 등 감정 기복이 심함'(23.2%), '불면증 또는 과수면(6.3%)', '입맛 저하 또는 증가'(3.9%), '만성 피로'(3.2%) 등의 증상을 겪고 있었다.

계절성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수면, 휴식'(37%)이었다. 다음으로 '친구나 동료와의 수다'(25%), '여행'(13.4%), '운동'(11.3%), '흡연 및 음주가무'(7.7%), '힐링푸드 섭취'(5.6%)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직장인들은 계절성 우울증으로 인해 직장에서 업무에 대한 열의가 없어지고 평소보다 작업 진행이 오래 걸린다고 호소했다. 응답자의 40.1%는 계절성 우울증으로 인해 '업무에 대한 열의 감소로 간단한 작업도 오래 걸린다'고 답했다. 이어 '평소보다 업무적으로 많은 실수를 한다'(20.1%), '직장동료와 거리를 두고 혼자 지낸다'(19%), '근무지에서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는 일이 많다'(7.7%), '업무 내용을 쉽게 잊어버린다'(6.7%), '잦은 병가와 결근을 한다'(6.3%)고 답한 직장인도 있었다.

한편 계절성 우울증을 겪을 때 주변사람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하냐는 질문에는 85%가 '숨기거나 참고 일한다'고 말했다. 계절성 우울증에 대한 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을 숨기거나 참고 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정복기자

세종시교육청-충남대학교

자유학기제 및 진로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29일 충남대에서 충남대학교(총장 오덕성, 이하 충남대)와 자유학기제 및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올해 자유학기제 본격 시행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줄 수 있는 진로체험에 있어 교육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자유학기제 및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충남대는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해 자유학기 활동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초·중·고 진로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충남대의 교육프로그램에 관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교사,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 홍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자유학기제로 촉발된 변화가 교육과정과 수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인성과 역량을 기르는 학생의 성장중심 교육과정이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협약으로 관내 학교들이 대학의 질 높은 교육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정복기자

서산 운신초, 초록빛 음악회 개최 지난28일 운신초 다목적강당에서 초록빛 작은 음악회를 가졌다. 방학식을 대신한 이번 음악회는 본교 특색교육인 '1인 1악기 연주하기'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부모님 앞에서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강경산양초등학교 학교발전협의회 구성

학교와 교육공동체 상호간의 소통으로 행복한 학교 운영

강경산양초등학교(교장 박희복)는 학교발전협의회가 지난 7월 8일 구성되었다.

학교와 교육공동체 상호간의 소통으로 행복한 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발전협의회는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장학회, 총동창회,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매월 정기모임을 통하여 학교 발전을 협의하게 된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학생 및 교직원 복지와 안전을 위한 사항, 교육공동체 발전을 위한 정보교환, 학교발전을 위한 현안과 문제점 해결 등이다.

그동안 강경산양초등학교는 여러 단체가 학교를 위해 활동해왔지만 함께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월 총동창회가 창립되어 학교발전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김태선기자

동덕초, 안전한 여름방학 위한 교육 실시

동덕초등학교(교장 전동진), 4학년 3반에서는 지난 28일, 안전한 여름방학을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안전교육을 먼저 하고, 퀴즈를 풀어 본 다음, 미니 안전북을 함께 만들어 보았다.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문제들도 아이들은 많이 틀리고, 어려워했다. 안전한 여름방학을 위해 차근차근 알아나가자 이내 아이들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가득했다.

안전교육을 하고나서 교육한 내용을 토대로 미니 안전북을 만들었다. 안전북 내용을 채우며 마지막엔 빙고게임으로 마무리했다. 방학을 시작하는 날이니 만큼 여름방학 나의 생활 선서문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다짐하는 모습이 모두 진지했다.

학교관계자는 "안전북을 만들고, 선서문을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건강하고 안전한 방학생활을 보내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대전시교육청, 전국 최초로 공기업이 참여하는 학교 태양광 발전사업

'학교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7월 29일 대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학교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6개사에서 공동 투자한 햇빛새싹발전소(주)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전시교육청은 학교 옥상 유휴 공간 활용 방안을 찾고 있던 중, 한국전력공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전국 최초로 교육청과 한국전력공사 간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학교 옥상에 한국전력공사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전액 투자하여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하며, 생산한 전기를 판매한 수익으로 학교에 임대료를 내는 방식이다.

학교마다 옥상은 남향으로 햇빛으로 발전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학교 옥상 임대기간은 20년이며 임대 기간이 끝나면 태양광설비를 학교에 기부하거나 사업자가 철거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내 학교에 설치할 태양광발전소 발전 시설 면적은 16만5천㎡로 축구장 23개 넓이와 맞먹는다. 이 면적은 태양광발전 설비 25MW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 용량은 한 해 동안 약 3천4백만k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약1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김정환기자

'지역교육청 통폐합 정책' 반대 운동 확산

청양군학교운영위원장 협의체 · 학부모회 연합회, 본격적 서명운동 등

청양군 학교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들은 지난 29일 청양도서관에서 교육부가 추진하는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추진 정책에 대한대책을 논의했다.

청양군 학교운영위원장 협의체와 학부모회 연합회는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지역교육청을 통폐합하려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본격적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지속적으로 반대 성명을 낼 예정이다.

이날 함께 참석한 김홍렬 도의원은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청양 학생들의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해서 다함께 힘써 달라"고 말했다.

또한 신인석 청양군학부모연합회장은 "지역사회의 요구를 배제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에 청양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 반대 의견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음 주까지 통폐합 반대 서명운동을 벌인 후 교육부와 국회를 항의 방문해 반대 서명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지난 6월 7일『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했다.

이는 3년 연속 인구수 3만명 또는 학생수 3천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충청남도는 청양교육지원청이 해당된다.

청양=정상범기자

충남도교육청, 초등학교 돌봄교실 점검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여름방학을 맞이해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안전관리 및 활동상황을 점검하고 인근에서 함께 연계해 학생들을 돌보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격려했다.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사업 컨설팅' 실시

금산교육지원청, 학교교육력 제고하고 자녀 교육역량 강화하고자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손중대)은 지난28일 관내 초·중·고 9교의 학부모 업무 담당교사, 학부모회장을 대상으로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사업'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사업은 학교교육에 학부모의 적극 동참을 통해 학부모의 의견과 재능, 봉사활동, 교육에 대한 관심을 학교 교육계획 및 교육활동에 더하여 학교교육력을 제고하고 자녀 교육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금산 관내 2016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사업 학교는 초, 중, 고를 종합해 충남교육청 선정 1교, 금산교육지원청 16교 총 17교가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이루어진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사업 컨설팅은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상반기 사업 추진내용, 성과 등에 대해 학부모 간 소통하고 사업의 효율적 예산집행을 도우며, 운영상 애로점을 알고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금산=손광우기자

아산교육지원청, 어르신 무료배식 봉사 활동 지난 28일, 온양온천역 어르신쉼터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2개교(온양용화중, 온양한올중) 20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어르신 무료배식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한남대 Y-SMU포럼 하반기 워크숍

회원 200여명 참여 2016년도 하반기 사업계획 협의

대전시새마을회(회장 한재득) 산하 대전한남대Y-SMU포럼(회장 서충만)은 지난 28일~29일(1박2일간) 동학사팬션에서 임원 및 회원 20여명과 함께 제2새마을운동 및 청년조직 활성화를 위한 2016년 하반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1학기동안 추진한 Y-SMU포럼 활동상황을 피드백하고 하반기 추진계획과 신규회원 모집을 통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의 및 추진의지를 모으는 화합행사로 진행됐다.

송병배기자

●동 정●●●

백제문화제후원 협약식

안희정 충남도지사= 1일 오후 2시 도청 외부인사접견실에서 열리는 제62회 백제문화제후원 협약식에 참석.

道, '미래 경제위기 예측 · 대응' 시스템 만든다

지역 맞춤형 시스템 구축 본격 추진

충남도가 경제 위기를 미리 예측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내 도입한다.

도는 최근 '충남경제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를 갖고, 시스템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충남 경제 위기 대응 시스템은 도내 각 산업 동향이나 자료, 지수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분석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위기 상황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고 있으나, 특정 지역 맞춤형 시스템은 도가 처음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 추진은 도내 산업이 대기업과 제조업, 중국 수출 편중 등으로 대외 경제 변화 대응에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비상사태 대응 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수시로 보완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한 행동 계획(액션플랜)과 매뉴얼을 작성, 경제 위기를 미리 감지하고 대응해 나아간다는 복안이다.

올 연말 구축해 가동할 예정인 이번 시스템을 통해서는 도내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철강, 자동차 부품산업의 동향과 위기 징후를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시스템은 또 산업구조와 금융, 부동산, 가계부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미 있는 정책 대안도 제시하게 된다.

김하균 도 경제산업실장은 "충남은 대외 경제 환경 변화에 민감한 경제 구조를 가져 위기 발생 시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라며 "이번 시스템은 위기 시 유관기관 간 정책 공조를 통한 신속 대응으로 충남 경제의 대내 · 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경제 불확실성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지역경제 관리를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1~5월 금융 · 경제 분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 시스템 구축 방향과 범위, 중점 추진 사항 등 전반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시스템 구축은 지난 2005년 중앙정부 경제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참여해 온 산업연구원이 수행하게 된다.

김정한 기자

행복도시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

주민들 문화향유 기회 확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도시내 설치되는 미술작품의 예술성을 높이고 문화도시로서의 품격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세종시 새롬동(2-2생활권) 공동주택단지 미술작품 제작 · 설치 공모를 7월 29일 공고했다.

행복청은 이번 '세종시 새롬동(2-2생활권) 공동주택 미술작품 제작 · 설치 공모'를 통해 창의적이고 수준높은 미술작품들을 선정하여, 세종시 새롬동(2-2생활권) 전체를 아우르는 순환산책로를 따라 설치함으로써 품격높은 예술가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행복청은 기존의 미술작품 설치방식이 개별 아파트단지나 건축물별로 설치되어 주민들의 예술작품 향유 기회가 제한되고 예술성과 작품규모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해 9월 '건축물 미술작품 특별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미술작품의 통합설치를 추진하였고, 금년 6월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미술작품 설치기준'을 개정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의 선정 및 공모를 대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건축물의 주변 미술작품의 예술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세종시 새롬동(2-2생활권) 공모는 11개 공동주택 단지 내 13개소에 설치될 미술작품을 공모하며, 세종시 새롬동(2-2생활권)의 옛 지명인 송원(松院)리에서 착안하여 작품 통합의 주제를 소나무로 정하고 "옛길 소나무에 취하다"로 명명하였다.

13개 미술작품의 개별 사업비는 5천7백만원에서 1억9천4백만원이며, 응모신청은 8월 10일(수)까지 접수받아, 공동주택의 준공일정에 맞추어 10월 말까지 공모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미술작품 공모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naacc.go.kr) '전체메뉴' - '알림소식' - '설계공모'의 공고(게시번호 61129)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복청 서정열 문화도시기획팀장은 "소나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세종시 새롬동(2-2생활권)이 담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전통성을 이어나가면서, 스토리가 있는 고품격 예술가로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이정복기자

어린이 미술아카데미 강좌 한창

연꽃 향기 그윽한 한여름, 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이하 이응노의 집)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관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미술아카데미' 강좌가 한창이다.

이응노의 집 어린이 미술아카데미는 여름방학을 맞은 관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미술과 다른 예술 장르와의 융 · 복합적 교육 강좌'로, 2012년 첫 강좌 이후 5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응노의 집에서는 지난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선착순 모집을 통해 20명의 관내 어린이들을 선발, 어린이 미술아카데미 강좌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이번 어린이 미술아카데미의 주된 강좌는 '미술과 연극의 만남', '미디어와 미래어', '요리와 미술'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미술과 연극의 만남'은 이응노마을신문 편집인이자 연극연출가인 전상진씨가 맡아 진행하며, 고암 이응노 화백의 어릴 적 꿈인 '화가'와 어린이들 각자의 꿈을 소재로, 미술과 연극이 융합된 한편의 연극으로 만든다.

고암의 대표작인 '군상群像'을 어린이들 각자의 해석으로 그려 무대를 구성하고, 고암과 어린이들 각자의 꿈으로 녹여낸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짧은 이야기로 구성, 한편의 연극으로 완성한다.

'미디어와 미래어'는 내포문화미디어센터 황다희씨가 맡아 진행한다.

미술의 확장 영역인 사진과 영상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배워 직접 촬영하는 시간으로 채워진다. 미술 영역을 넓히고 지금의 디지털 환경에 대비하는 교육으로 어린이들과 함께 이뤄지고 있다.

또한 '요리와 미술'은 홍성제과제빵 원장인 한마음씨가 맡아 진행한다.

'내 몸과 음식의 관계'를 통해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해 알아보고, 제철 식재료와 맛깔 나는 요리 실습을 통한 아름다운 미술조형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어린이 미술아카데미는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8일 12일간 매주 화 · 수 · 목 3회씩 총 12회 진행되며, 강좌가 끝나는 날인 8월 18일에는 작은 발표회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현재 이응노의 집은 한여름 곱디고운 자태로 피어나는 연꽃을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있으며, 이번 어린이 미술아카데미를 비롯해 결성향교와 연계해 지난 4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한 차례씩 열리는 성인 인문학 강좌인 '홍주에서 노닐다' 등 전 세대를 어우르는 교육 강좌를 마련하고 있다.

홍성=최진우기자

독립운동 기념비 설치 등 다양한 역사사업 주목

예산군, 윤봉길의사의 선각자정신 · 애국충혼 기려

예산군이 매헌 윤봉길의사의 선각자정신과 애국충혼을 기리기 위해 구)삽교역사에 '윤봉길의사 독립운동 기념비'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역사사업을 펼쳐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군에 따르면 기념비는 1930년도 3월 6일 삽교역을 통해 중국으로 망명 조국독립을 위해 산화한 윤봉길 의사를 기리기 위해 1932년도 상해의거 거사 84년 만에 건립됐다.

군은 기념비 건립이 윤봉길의사가 조국 독립을 위해 중국 망명길을 오른 첫 출발지이며 군민의 애환과 추억이 있는 구)삽교역의 역사적 의미를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상징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올해 광복 71주년을 맞아 지난 4월 29일 충의사에서 매헌 윤봉길 의사 상해 의거 84주년 기념식과 추모다례를 가진데 이어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일본 가나자와시 윤봉길 의사 암장지를 찾아 헌화 분향하고 보존 관리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아울러 지난 5월 15일에는 예산초등학교 교정에서 매헌 윤봉길 의사의 흉상 건립 제막식이 열리는 등 윤봉길 의사의 애국정신을 이어나가는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어 광복 71주년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황선봉 예산군수는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켜낸 선조들이 있어 지금의 우리가 있다"며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에서 태어나 '장부가 뜻을 품고 집을 나서면 이루기 전에는 살아오지 않는다(丈夫出家生不還)'라는 말을 남기고 중국으로 망명해 조국 독립을 위해 산화한 매헌 윤봉길의사의 애국정신을 이어나가는 것이 우리 후손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삽교역사는 (사)내포문화숲길에서 윤봉길의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추진하는 '윤봉길 평화의 길 걷기행사'의 출발점이며 군은 (사)내포문화숲길, 월진회 등 사회단체와 주민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 기념비를 설치했다.

예산=이상화기자

'세종시 맞춤형급여시행' 복지사각지대 줄어

수급자 30.4% 증가‥세종형 기초생계 지원제도 연계 노력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맞춤형 급여를 시행하면서 복지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지난해 7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 후 1년 만인 현재 수급자가 4,326명으로 개편 전 3,315명에 비해 30.4%가 증가했다.

이는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맞춤형 급여제도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그동안 도움이 필요하지만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을 수 없었거나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된 어려운 이웃을 발굴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려수 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 맞춤형급여의 지속적인 홍보 및 대상자 발굴에 힘쓸 뿐만 아니라, 맞춤형급여제도권 밖에 놓인 열악한 환경에 처한 시민에게도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어려운 이웃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정환기자

홍성군 3농혁신 현장 포럼 열려

3농정책의 비전 · 방향 공론의 장 마련

홍성군은 농어업 · 농어촌 · 농어업인의 변화와 추세에 대한 진단 및 3농정책의 비전과 방향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코자 3농혁신 현장포럼을 지난달 29일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김석환 홍성군수와 3농혁신 위원장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홍성군 학교급식 운영 현황 설명과 공공급식센터의 공공역할 강화 방안에 대한 역점시책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포럼 참석자들은 홍성군 학교급식센터를 방문해 문제 해결 모색과 관련 이해관계자 중심의 현장 토론도 가졌다.

군은 현장 토론 후에 충남도에 친환경 농산물 증대로 인한 전처리 시설이 부족하고 친환경 농산물 공급량 증가로 냉동 및 냉동 창고 부족에 따른 시설비 2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홍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는 2014년 3월 1일 개소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민 · 관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지역의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학교급식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과 교육복지 증진, 우리지역 로컬푸드 확산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로인해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3농 혁신의 모델로 홍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자리잡아 금번 현장 포럼을 실시하게 됐으며 인근에 거북이 마을을 비롯한 외지에서 온 귀농인들이 둥지를 틀고 3농 혁신 이념에 맞는왕성한 활동을 하고있다.

군은 앞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식재료 안전성검사를 강화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위하여 지역의 농산물외에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이 확대 공급해 3농 혁신의 이념에 걸맞은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홍성=최진우기자

세종시 통일탐구토론대회

세종시 청소년들이 통일한국의 비전과 희망을 탐구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키웠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시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미래를 설계하다'라는 표어를 내걸고 중 · 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세종시 통일탐구토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를 위해 학생들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4명의 학생이 팀을 이뤄 한반도 평화통일 관련 주제를 선정하고 2개월 이상의 문헌조사와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등의 탐구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날 통일탐구토론대회는 중 · 고등학교 학교급별로 나누어 실시됐다. 역할극, 노래, 뉴스 보도 형식 등 자신들만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탐구 결과를 발표하고 다른 참가팀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함께 토론해 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학생들이 제출한 탐구보고서와 발표 동영상에 대한 1차 예비심사 결과 선정된 8팀(중 4팀, 고 4팀)을 대상으로 '남북한이 만나야 한다(평화통일을 위한 남북한 환경조성 방안)', '함께 걸어가는 평화통일의 길(통일을 향한 남북관계의 바람직한 모습)' 등 다양한 소주제를 가지고 탐구내용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의 심층적 토론 과정으로 이뤄졌다.

김미리 교사(종촌고)는 "무더운 날씨에도 통일탐구토론대회 준비를 하면서 학생들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했다"면서, "학생들이 평화통일을 탐구하며 보낸 시간이야말로 인생에서 정말 의미있는 시간이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여러분의 탐구보고서와 발표 하나하나가 모두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 필요한 소중한 결과물이다"라면서,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세종=이정복기자

충남도, 자원순환사회 전환 선제적 대응방안 모색

폐기물 최소화 정책방향 설정

충남도는 지난달 2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환경 관련 전문가, 대학교수 및 각 시 · 군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환경혁신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혁신 아카데미는 오는 2018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과 관련한 도의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아카데미는 1부 주제 및 사례발표에 이어 2부 참석자 전원이 상호 의견을 제시하는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환경부 김명환 사무관이 '자원순환기본법 주요제도'를 소개한데 이어 충남대 장용철 교수가 '자원순환사회를 향한 폐기물 관리와 폐기물 처분부담금의 개요'를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실시했다.

이어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 '자원순환 선진사례' 발표를 통해 선진국의 우수 사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충남대 박재묵 교수의 진행으로 환경시민단체, 폐기물 분야 전문가, 허승욱 도 정무부시사와 신동헌 도 환경녹지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서는 자원순환을 위해 도 차원에서의 폐기물 매립 최소화 정책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매립 제로화 정책의 단계적 실행과 사업 수립 · 추진을 위해 도내 15개 시 · 군이 참여하는 협의체인 가칭 '충남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T/F'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허승욱 도 정무부지사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는 2018년은 그간 매립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해 온 지역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는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환경혁신 아카데미를 통해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한 기자

의용소방대 임용 전 사전 교육

홍성소방서, 하반기 신규 임용 의용소방대원 역량 키워

홍성소방서는 지난달 29일 대회의실에서 임용 전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소양교육을 실시해 의용소방대원으로서 기초 역량을 쌓도록 했다.

지난 12일 하반기 신규의용소방대원 면접을 통해 최종선발 된 14명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므로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지녀야할 정체성과 기초 수행능력을 사전 습득해 임용 초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홍성소방서는 추진하고있다.

김근제 홍성소방서장의 교육취지 및 의용소방대원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교육을 시작으로 의용소방대 관련 법률 연찬과 현안업무인 지역안전 봉사단체로 거듭 날 의용소방대 혁신안을 소개하므로 주민자치소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대원들의 역할과 임무를 확실히 숙지할 시간을 가졌다.

한편, 지난 3월부터 홍성의용소방대가 적극적으로 마을담당제 활동을 펼친 결과 화재건수가 30%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는 등 지역사회에 안전 파수꾼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하반기 신임 의용소방대원들의 활약이 기대되고있다.

홍성=최진우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동 정

8월 월례모임

복기왕 아산시장= 1일 오전 8시 시청 시민홀에서 열리는 8월 월례모임에 참석.

만남의 날 행사

정병희 당진부시장 =1일 오전 8시 30분 시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8월 중 직원 만남의 날 행사에 참석.

월례조회 · 직장교육

한상기 태안군수 = 1일 오전 8시 30분 군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공직자 월례조회 및 직장교육에 참석.

세계조롱박축제 개막식

이석화 청양군수 = 1일 오전 10시 30분 정산향교에서 열리는 하계 충효예교실 개강식에 참석한 후, 오전 11시 천장리 알프스마을에서 열리는 제6회 세계조롱박축제 개막식에 참석.

월간 업무 보고회

심재진 당진교육장=1일 오전 9시 당진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월간업무보고회에 참석..

깨끗한 둔포만들기 캠페인 실시

아산시 둔포면(면장 신성철)은 지난 27일, 주차질서 확립 및 깨끗한 둔포 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해 둔포면 직원 및 청소지킴이, 각 기관단체 회원들이 참여해 둔포면 상가를 일일이 방문하며 올바른 주차질서 및 쓰레기 배출요령 등의 안내문을 배부하면서 주민홍보로 실시됐다.

또한, 8월 1일부터 둔포면을 경유하는 서울행 동양고속버스 운행에 따라 불법주차를 하지 않고, 둔포시내 상가 앞은 방문고객을 위해 상인들의 차량주차를 최대한 자제하여 대중교통버스가 원활히 운행될 수 있도록 면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권유하는 캠페인도 병행하여 추진했다.

신성철 면장은 "요즘 우리 둔포면이 계속 발전해 나감에 따라 날로 늘어나는 불법 주 · 정차 및 불법쓰레기 투기 등의 근절은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둔포면은 이번 캠페인을 1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어느 정도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과 쓰레기 배출 등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아산=리량주 기자

"서민경제 활성화 속도 낸다"

당진시,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 민 · 관 합동추진단 구성 추진

당진시가 지난 7월 2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병희 부시장 주재로 올해 상반기 서민경제 활성화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당진시는 지난해 2월 서민경제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한 뒤 실천결의대회와 캠페인 개최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서민경제 활성화 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특히 각 부서별로 34대 중점과제와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 중에 있다.

이날 보고 자료에 따르면 34대 중점과제와 10대 중점과제에 대해 올해 상반기에 총 23건을 추진, 214억여 원의 정량적 경제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지원 대출실행 103건, 36억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17세대 3400만 원 ▲축산농가 사료구매 지원 101농가 73억 원 ▲당진사랑상품권 판매 2억3000만 원 ▲출향인사 고향상품 팔아주기 1390명 4천만 원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전통시장 이용 1321명 1억 2500만 원 등이다.

시는 영국의 브렉시트 탈퇴 가시화 등 국 · 내외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도 지속될 수 있고, 관내 중 ·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호소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도 서민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9월에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 · 관 합동추진단도 구성해 운영에 돌입하는 등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당진=최근수기자

태안군 폭염 속 독거노인 건강관리 '총력'

7~8월 독거노인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493명 대상 교육

최근 폭염이 이어지고 가운데, 태안군이 관내 독거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고령 온열질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보건의료원과 각 읍 · 면 보건지소, 독거노인 자택 등에서 관내 독거노인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493명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것으로, 독거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여름철 건강교육은 올해가 처음이다.

군은 보건의료원 담당자와 방문건강관리사, 영양사, 치매관리사, 보건진료소 관계자 등 26명을 투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 ▲여름철 폭염대비 건강관리법 ▲치매예방법 등의 내용을 교육한다.

그리고 치매조기검진을 받지 않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교육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관리대상 독거노인 493명 중 219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그 외 274명에 대해서는 개인별 방문 교육 및 건강관리에 나서는 등 몸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도 병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 주변의 이웃 및 가족의 연락처를 파악,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들이 집에서도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리플릿 등 홍보물을 배부하며 폭염대비 노년층 건강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이번 건강관리 교육을 통해 독거노인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더불어 이웃과의 교류를 통한 정서적 안정 및 우울감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올해 교육결과를 토대로 미비점 등을 보완해 내년에도 독거노인 대상 건강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면 가급적 야외작업 등을 자제하는 등 폭염에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태안=김정한기자

물놀이 수난구조훈련 · 안전사고예방 캠페인 펼쳐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지난 28일 까치내유원지에서 청양경찰서, 청양소방서,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지역자율방재단, 대한적십자봉사회,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물놀이 수난구조훈련 및 안전사고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물놀이 수난구조훈련 및 안전사고예방 캠페인 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재난네트워크 민관협력 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능별 훈련으로, 익수자에 대한 응급조치요령 및 심폐소생술 교육, 안전사고예방 캠페인까지 동시에 실시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다.

강준배 청양 부군수는 "이번 훈련은 우리의 가족과 이웃주민의 생명을 수호하기 위한 뜻깊은 훈련"이라며, "또한 까치내유원지는 국민안전처 2015년 물놀이 안전명소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완벽한 안전관리체계시스템으로 그 명성을 이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 기자

이승우 前 태안군 도시건축과장 장학금 1천만원 기탁

형 이용우 씨와 동생 이학우 씨도 함께 참여

태안군에서 고위 공직로 근무했던 이승우 전(前) 도시건축과장과 형 이용우 씨, 동생 이학우 씨 등 삼형제가 태안군에 장학금을 기탁. 변치 않는 지역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군에 따르면, 이승우 전 도시건축과장 등은 지난 28일 군청 군수실에서 한상기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기탁식을 갖고 1천만원을 (재)태안군사랑장학회에 기탁했다.

이승우 전 과장은 38년 6개월 동안 복구지원팀장, 도시개발팀장 등을 거쳐 도시건축과장을 역임하다 지난 2013년 12월 퇴임했으며, 남면 신장리에 거주하는 형 이용우 씨와 대전시 유성구 두리중학교에서 교감으로 재직 중인 동생 이학우 씨도 함께 뜻을 모아 이번 장학금 기탁식에 참여했다.

이승우 전 과장은 "지난 5월 상수(100세)를 앞두고 작고하신 부친(故 이종인)의 영면을 기리고자 삼형제가 고인의 마음을 담아 태안군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태안의 발전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우/리/동/네

강준배 청양부군수, 취임 후 첫 읍`면방문 마무리

강준배 청양부군수가 지역의 현안을 파악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나선 읍 · 면 순방을 마무리했다. 강 부군수는 지난 22일 청양읍에서 시작해 29일 정산면을 끝으로 10개 읍`면 250여명의 지역 리더들에게 군정 주요현안을 설명하고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당진 대표필지 중심 토양검정사업 추진

당진시농업기술센터가 오는 2020년까지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과 공동으로 대표필지 중심 토양검정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그 동안 시에서 검정된 필지 중 1,807점의 대표필지를 선정해 올해부터 5년간 토양 화학성을 분석하는 협동연구 사업이다.

대표필지에 대해서는 논과 밭, 과수원 시설재배지의 재배유형과 평탄, 비평탄 등 토양특성을 고려해 지점선정 후 토양을 채취해 산도(pH), 유기물,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인산, 규산, 전기전도도(EC), 석회요구량을 분석한다.

토양분석결과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인 흙토람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돼 누구나 지역별 농경지의 양분분포와 양분관리를 위한 시비처방, 농경지 비옥도 변화를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토양검정자료를 농식품부 'AgriX'의 기본 자료로 제공해 농산물품질인증과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직불제 등 정책사업 추진의 기본 자료로 사용되며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한 토양관리 및 영농지도에도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대표필지 토양검정을 통해 마을별 토양 화학성을 추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사업과는 별개로 관내 6000필지에 대한 토양검정을 자체적으로 실시해 농업인들의 과학영농 실천과 농산물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배방읍 복지허브화 통합사례회의

아산시 배방읍(읍장 김동혁)은 지난 28일 복지허브화 추진 및 복지담당자간 소통과 협업을 위한 민 · 관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아산시 사회복지과, 보건소,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민 · 관 협력을 통한 통합적인 관점에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사례관리 대상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혁 읍장은 "복지허브화의 중심축으로서 소외된 이웃이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배방읍은 2016년 4월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되어 사회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복지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공공 · 민간자원을 활용한 서비스연계, 가구 및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아산=리량주 기자

우/리/동/네

맞춤형 급여 제도 시행 1주년 성과 나타나

서천군, 지난해 7월부터 시행 복지사각지대 해소 큰 효과… '뜻깊은 결실' 맺어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1년간 시행한 맞춤형 급여 제도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천군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는 6월말 기준으로 1,797가구로 지난해 6월 1,610가구에 비해 187가구(1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맞춤형 급여 시행 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함께 적극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노력에 따른 결실이라고 군은분석하고 있다.

맞춤형 급여는 선정기준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모든 급여가 중지되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수급권자의 가구

별 여건에 맞게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별로 선정 기준을 각각 다르게 적용해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한 제도이다.

구남신 사회복지실장은 "제도를 알지 못해 적절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8월말까지 맞춤형 급여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수시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 관련 문의는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사회복지 실(950-4326), 보건복지 콜센터(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하면 된다.

김태선 기자

부여군 웃고 즐기고 행복하고

보건소, 독거노인 어르신 하하호호 행복교실 운영 마무리

지난 5월부터 외산면, 세도면, 초촌면 등 3개 면에서 실시한 이번 행복교실은 주2회씩 4주간에 걸쳐 정서적으로 우울감을 낮추고, 자아존중감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부여군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28.9%로 초고령사회이며, 이중 독거노인 비율이 30.4%로 나타나 외로움과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독거노인에 대한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부여군보건소는 생명존중교육, 웃음치료, 미술심리치료, 힐링 푸드 만들기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기분전환과 활력 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 교육을 진행했다.

토탈공에 교육을 받은 한 어르신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외로움을 많이 느꼈었는데, 비슷한 상황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는 교육을 받아 잠시나마 쓸쓸함을 잊을 수 있어 좋았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장환 보건소장은 "부여군 자살자중 62.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자살 사고를 낮추고, 고 위험군인 독거 어르신들의 우울감 감소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또한 지역 내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을 정하고, 이날만이라도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부여=이정복기자

다문화자녀 엄마랑 함께 책속에 풍덩 빠지다

부여군, 독서를 통한 다문화가정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운영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지난 3월 8일~7월 27일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자녀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들의 언어 및 독서를 통한 학습능력 촉진을 위한 독서논술 교육을 실시했다.

매주 수요일 실시하는 다문화자녀를 위한 독서논술지원 사업은 다문화자녀 중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학습 및 언어능력 발달 향상을 위해 좋은 독서습관을 길러주고, 독서논술 지도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과 창의력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됐다.

독서프로그램인 '엄마랑 나랑 책속에 풍덩'은 제목처럼 엄마는 자녀를 위한 독서논술 지도방법을 배우고, 자녀는 강사에게 독서논술을 배우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가정에서도 엄마가 직접 독서논술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효과를 배가시키고자 추진됐으며, 2014년부터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지난 27일 실시한 교육에는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해 주는 '가족신문 만들기'를 실시했으며, 총20회에 걸쳐 독서논술 지도사인 김경희 강사, 이옥분 강사가각각 아동반과 엄마반을지도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다문화자녀의 책읽기, 독서논술, 독서토론 등 좋은 독서습관을 길러주었으며, 다문화자녀의 학습 및 언어능력을 향상시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을줄 것으로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여=이정복기자

태학산자연휴양림 물놀이장 개장

천안시시설관리공단, 21일까지 어린이 전용물놀이시설 무료운영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동규)이 운영하는 태학산자연휴양림 내에 물놀이장이 개장되어 휴양림을 찾는 어린이 방문객들을 기다리고있다.

지난 2001년 개장한 태학산자연휴양림은 소나무집과 참나무집을 비롯한 다양한 휴식공간을 갖추었으며 완만한 산행 코스로 가족단위의 방문객들이 주로 찾는 천안의 숨은 명소다.

이번에 개장하는 어린이전용 물놀이장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간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어린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매주 월, 화 및 우천시에는 휴장한다.

또한, 어린이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였으며 '쓰레기 되가져 가기' 홍보현수막을 설치해 물놀이장 주변의 환경 관리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김동규 이사장은 "태학산자연휴양림 물놀이장이 방학을 맞은 가족단위의 방문객들에게 최고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어린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물놀이시설에 대한 자세한 이용안내는 태학산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041-529-5108)로 문의하면 된다.

천안=김정환기자

온(ON) 동네방네 발대식 열려

서천군, 8월 한 달 동안 사랑의 온정을 전합니다

서천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구창완)는 28일 문예의 전당에서 자원봉사 참가자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온(ON) 동네방네' 발대식을 개최했다.

2016년 자원봉사 네트워크사업 자원봉사 릴레이 '온(ON) 동네방네'는 8월 한 달 동안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따뜻한 봉사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물론 무료급식활동, 독거노인 집수리, 이미용봉사활동, 마술공연 등 재능기부 활동을 펼치게 된다.

앞서 자원봉사센터는 8월 한 달 동안을 자원봉사 집중기간으로 정해 온(ON) 동네방네' 활동에 참여할 개인, 단체, 가족 및 동호회의 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서천군 각 봉사단체를 비롯해 가족, 공직자, 기업체 및 80여개 팀 5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이번 릴레이에 참여하게 됐다.

구창환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새 영역을 개척하고 친구, 가족, 직장인들이 함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면서 "이번 발대식를 통해 각 분야에서 참석한 자원봉사자 등이 서천군 동네방네 구석구석에 따스한 손길을 전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발대식에 함께 한 노박래 서천군수는 "온(ON) 동네방네 자원 봉사 손길이 물결처럼 펴져 소외된 이웃들에게 삶의 위안을 주고 나눔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자원봉사센터는 8월 한달간 진행되는 각 단체별 봉사활동의 참신성 등을 고려해 우수 봉사단체를 선정해 11월 개최되는 자원봉사 대축제때 시상할 예정이다.

서천=김태선기자

계룡시자원봉사센터 무더운 여름 다양한 봉사활동 운영

200여명 학생 대상… 잉글리쉬 · 쿠킹 등 8개 체험프로그램

계룡시자원봉사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청소년 V(봉사)-School과 다양한 봉사활동을 위한 전문봉사자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청소년 여름방학 V(volunteer)-School'은 이달 1일부터 2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잉글리쉬 쿠킹, 뷰티, 퀼트, 풍선아트 등 8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단순 실적쌓기 봉사가 아닌 FUN(재미)한 봉사를 통해 체험활동 결과물을 어르신들께 전달하고 현장봉사 활동 등을 통해 나눔과 실천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문봉사자 양성을 통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자 엄사‧금암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이미용 전문가 과정', '수제품 제작과정'을 진행하여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 야외 봉사활동이 어려움에 따라 실내에서 진행하는 봉사자 양성교육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앞으로 다양하고 재미있는 봉사자 교육과정을 추가 신설하여 예비 봉사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천군 읍면 복지허브화 통합사례관리 교육 실시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지난 27일 서면사무소에서 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사 21명을 대상으로 읍면 복지허브화에 따른 제2차 통합사례관리교육을 실시했다.

읍면 복지허브화는 맞춤형복지팀이 주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민관 협력, 지역복지 자원의 발굴 연계를 통해 복지대상자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게 된다.

이날 교육은 민은희 한국사례관리연구소장을 초청해 읍면 복지허브화의 방향 및 운영체계, 사례관리 개입 단계별 실천 포인트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으며 사례관리에 대한 이해와 유용한 현장실무 능력을 배양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정으로 마련되었다.

한편, 서면 맞춤형복지팀은 4월 읍면 복지허브화사업 시행과 함께 구성되었으며 현재 복지사각지대 발굴, 민관협력사업, 통합사례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여 주민들의 복지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서천 =김태선기자

동 정

확대간부회의

구본영 천안시장= 1일 오전 8시 30분 봉서홀에서 열리는 직원 월례모임에 참석하고 오전 10시 30분 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되는 확대간부회의에 참석.

주간업무보고회

황명선 논산시장= 1일 오전 8시30분 상황실에서 개최하는 주간업무보고회에 참석.

논산 자원 봉사 활동 '전국에서 빛났다'

논산시 자원봉사 단체의 이색적인 봉사활동이 전국적인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28일 한국자원봉사센터와 중앙일보가 주관하고 자원봉사 축제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제23회 전국자원봉사 대축제(이하 자원봉사 축제)에서 논산자원봉사 단체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거머쥤다.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개최된 이번 자원봉사 축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프로그램은 논산시 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승종)의 '집밥 강사 봉사회'가 진행하고 있는 '꽃할배 요리사' 프로그램이다.

부엌과 거리를 두고 사시던 할아버지를 부엌으로 불러드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요깃거리를 스스로 해결토록 도와 홀몸이 되더라도 최소한의 품위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것이 목적이다.

지난 2014년부터 '집밥 강사 봉사회'가 주관이 되어 이끌어 온 '꽃할배 요리사' 프로그램은 이미 수차례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고, 최근에는 할아버지들이 손수 만든 밑반찬을 어려운 이웃과 다시 나누는 봉사의 선순환으로 발전하고 있다.

논산시 자원 봉사센터의 '집밥 강사 봉사회'가 어르신을 위한 사업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면 우수상의 주인공이 된 건양대의 청년 봉사 단체인 '해피투게더'는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

청년봉사 단체인 건양대 '해피투게더'는 논산 최대 전통 화지시장을 무대로 이용객이 가장 많은 매주 토요일 어르신들의 짐을 대신 들고 음료수 제공 봉사로 자칫 쇠락할 수 있을 재래시장의 듬직한 일꾼 역할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최우수상을 차지한 '집밥 강사 봉사회'의 꽃할배 요리사 프로그램을 현재 시내권 어르신에서 논산 전체 어르신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건양대 '해피투게더' 역시 재래시장 환경 개선에 도전하는 새로운 진화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

이번 자원봉사 대축제는 전국의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가 진행하는 총 584건 프로그램 중 29개 프로그램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으며, 충청남도에서는 우리 논산시가 유일하게 수상하였다.

논산=김태선기자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동 정

확대간부회의 주재

오시덕 공주시장= 1일 오전 8시 30분 대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 주재.

시민과 함께하는 청결행사

김동일 보령시장 = 1일 오전 6시 대천3동 일원에서 열리는 시민과 함께하는 청결행사, 오전 8시 30분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8월중 직원모임 참석.

나라사랑 태극기 공원조성 행사

이완섭 서산시장= 1일 오전 10시 30분 솔빛공원에서 열리는 민주평통 나라사랑 태극기 공원조성 행사에 참석, 오후 4시 30분 시장실에서 서산시민 행복나눔 프로젝트 성금 전달식 참석.

교육장 강의

박도순 보령교육장= 1일 오전 9시부터 보령교육지원청 제1회의실에서 진행되는 8월 직장교육 시간에 '목민심서로 되돌아보는 공직생활'이란 주제로 교육장 강의를 실시.

추가경정예산안 5062만원 삭감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열린 공주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734억원 중 5062만원이 삭감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공주시 각 부서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어린이 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 운영 / 1062만원 ▲ 어린이 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 2000만원 ▲갑사 먹거리장터 조형물 철거 및 재설치 / 2000만원 등 총 3건 5062만원을 삭감해 수정 가결했다.

공주 =정상범 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서산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허가 수탁 시행

민원처리기한 대폭 단축 전망

서산시와 공군 간 건축허가 업무협의 수탁 체결이 완료됨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포함된 서산시 6개면, 2개동 지역의 건축허가 민원처리기한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그간 서산시에서는 해미면에 있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비행안전을 이유로 건축허가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공군부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약2주간의 시간이 소요되어 민원불편을 야기시켜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를 해결코자 지난해 2월부터 제20전투비행단, 공군부대, 합동참모본부와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해 왔고, 1년 6개월간의 노력 끝에 최근 공군 및 합동참모본부의 최종승인을 얻어 8월 1일부터 건축인허가 시 공군부대 협의 없이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안현기 서산시 건축과장은 '시민과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규제가 완화되어 민원서비스가 향상되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서 시행정이 중복되고 불편한 점이 없는지 찾아보고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산시 20전투비행장의 군사보호시설 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인지 · 부석 · 음암 · 운산 · 해미 · 고북 6개면과 수석 · 석남 2개동 일원이다.

서산=김정한기자

공주시,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검토결과 설명회

단계별로 조직 확대 주민의견수렴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지난달 29일 고마 컨벤션홀에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와 2018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등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부응하고 관광마케팅 전문화와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추진에 나섰다.

이날 설명회는 지역 문화예술 및 관광 관련 기관 · 단체와 시민 등 15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응수 기획담당관의 설립 경과보고와 용역을 수행한 공주대학교 안경섭 교수의 설립타당성 검토결과 설명,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안 교수는 재단설립의 필요성과 경제성 분석결과와 조직 및 인력수요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검토결과 충분한 타당성이 확보됐으며, 설립 초기에는 조직을 최소화하고 설립 이후 단계별로 조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내놨다.

윤응수 기획담당관은 "설명회에서 제시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재단설립을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출자 ·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와 충남도 협의 후 조례제정, 법인설립허가 및 등기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7년 1월 재단을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 내에서는 충남도와 천안시, 당진시, 아산시 등이 문화재단을 설립 운영 중에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재단을 설립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다.

공주=정상범기자

2016 해안선 레저스포츠 페스티벌 6일부터 개최

보령시 체험행사 '풍성'

보령시가 오는 8월 6일부터 7일까지 국민관광지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해안선 레저스포츠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해양 · 수상레저스포츠회가 주최/주관하며, 해양수산부와 충청남도, 보령시가 각각 후원하며, 천혜의 해양자원을 보유한 환황해권 최대의 대천해수욕장에서 개최함으로써, 보령시는 관광보령의 세계적인 홍보와 신성장 동력인 해양레저 산업의 활성화로 글로벌 해양관광 명품도시로의 위상을 정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캠핑, 카약오리엔티어링, 바나나보트, 스노쿨링 등 레저스포츠 뿐만 아니라, 캠핑 쿠킹대회, 문패만들기, 머드체험, 레크레이션, 열기구, 짚트랙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페스티벌 첫날인 6일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6시까지는 바나나보트, 스노쿨링, 열기구, 짚트랙, ATV등 레저스포츠 체험을 할 수 있고, 오후 3시부터는 카약 오리엔티어링, 오후 6시 30분부터는 보령 특산품을 재료로 한 캠핑 쿠킹대회가 열리며, 오후 7시부터 개회식으로 연예인 축하공연과 레크리에이션 시간도 갖는다.

둘째날인 7일은 전날과 같이 레저스포츠체험을 즐길 수 있으며, 오후 5시 30분에 폐회식을 갖고 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행사의 백미는 지도와 나침반을 이용해서 지정된 지점을 통과해 목적지까지 빨리 도달하기를 겨루는 카약 오리엔티어링 대회로써 가족과 친구, 연인 간 협동심을 키우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24일 막을 내린 '제19회 보령머드축제'를 체험하지 못한 관광객들을 위해 머드체험존을 운영하고, 참가 가족간 대결을 벌이는 쿠킹대회가 열리며, 스노쿨링과 바나나보트로 익스트림한 수상체험을 할 수 있다.

김동일 시장은"지난 6월 개최한 제5회 해양수산부장관배 국제 요트대회에 이어 오는 6일 열리는 해안선 레저스포츠 페스티벌은 보령시가 해양레저 산업을 선도하고, 특화된 관광산업 콘텐츠 개발로 내수 진작과 관광휴양을 활성화 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의지의 결정체이다." 며,"해안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가 복합된 새로운 해변축제로 국민들에게 신선한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페스티벌에서 카약은 1일 50팀씩 총 100팀, 캠핑은 200팀을 선착순으로

보령=김태선기자

윤종인 충남도 행정부지사 공주시 무더위쉼터 방문

충남도 윤종인 행정부지사는 지난달 28일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공주시 정안면 태성리 무더위쉼터를 방문,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윤 부지사는 유병덕 공주부시장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며 무더위쉼터 이용 노인들에게 불편함을 없는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에어컨 작동 여부, 청결 상태, 안내 간판 부착 여부 등도 확인했다.

특히, 더위가 심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하며 휴식을 취하는 등 폭염 행동요령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 공주시 폭염 특보는 지난해 7월 30일보다 20여 일 빠른 지난 8일 처음 발령됐다.

기상청 기상 전망에 따르면, 다음 달 역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폭염에 따른 피해 예방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지난 6월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 폭염 대응 관련 부서로 TF팀을 구성해 ▲폭염 대책 기간 조기 운영 ▲온열질환 발생 감시 · 정보수집 체계 개선 등 폭염 피해 예방 대책을 중점 추진 중이다.

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무더위쉼터 점검을 계속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태성리 주민들은 윤 부지사에게 마을진입도로가 협소해 밤줍기 체험 유치 시 대형차량이 통행할 수 없어 불편함을 호소했으며, 도로 확포장공사 및 하천정비 사업을 건의하기도 했다.

공주=정상범 기자

우/리/동/네

금산군 건강플러스 사업 호응

근골격계 질환 예방…이색 보건사업 운영 확대

금산군보건소(소장:이화영)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건강플러스 사업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호응을 얻고 있다.

이사업은 근골격계 질환 통증 완화 및 피로예방을 위한 스트레칭교육을 보급하고 기초건강 측정 등 만성관리질환 관리를 하는 종합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다.

군 보건소는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거나 반복적인 작업이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깻잎 농업인들에게 보건소 전담팀이 직접 농가로 찾아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전담 운동처방사를 비롯한 건강증진 전문 인력들이 농가에 직접 찾아간다.

또 보건진료소와 연계해 기초 건강측정 및 만성질환 관리도 함께 이뤄져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효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군 보건소는 프로그램을 확대 해달라는 깻잎 농가들의 요구도가 높아짐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추부면 장대리 일원을 대상으로 운영 · 확대할 계획 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규칙적인 운동 및 생활습관 변화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건서비스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금산=손광우기자

서산시 원예체험반 운영

서산시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농업과 농촌을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방학기간인 7월 27일부터 8월 24일까지 한달 간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원예체험반을 운영한다.

금번 교육은 2개교(팔봉초, 석림초) 20명의 어린이가 참여해 12회에 걸쳐 진행되며, 각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에게 재미와 동기를 부여하고 창의력을 길러주도록 짜여져 있다.

이론은 꽃의 구조와 기능 알기, 씨앗의 구조, 흙성분 리스트 만들기 등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내용들로 이뤄졌고, 현장 실습교육은 꽃바구니 만들기, 씨드페이퍼 타워, 천연비료 및 위기탈출 정수기 만들기 등 실생활에서 쉽게 접하고 응용할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됐다.

전수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으로 학생들이 식물과 토양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농업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서산=김정한기자

현대식 전통 가옥 MODRN TRADITIONAL HOUSES
BEST PLAN
옛 한국 전통 가옥의 장점과 현대적인 美를 더하다.
1 친환경적이다 (Eco-Friendly)
콘크리트가 아닌, 친환경적인 황토 벽돌과 나무골조를 사용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느낌과, 정서적인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황토가 가지고 있는 수억 마리의 미생물이 인체에서 나오는 독을
제거하고 우리 몸의 생리작용을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토피 등의 피부질환과 건강 관리에도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2 난방비 절약 (Economizing)
흔히 말하는 황토 집 온돌방(황토방)이 바로 이 전통 가옥입니다.
추운 겨울날, 아궁이에 불을 때어 집을 따뜻하게 하는 기술과,
구조적 특징으로 갖춘 습도와 온도조절 기능 그리고 공기 청정기능으로,
더운 날은 시원하게, 추운 날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면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서양의 벽난로 같이 과열되어 인화되는 위험성도 없고,
보일러나 벽난로같이 동파와 고장도 별로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3 전통적인 美 (Traditional)
한옥은 기둥 위에 '도리'라는 부재를 올리고, 그 위에 '서까래'
라는 부재를 올려서 지붕의 구조체를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생긴
처마의 형태가 구조적 아름다움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기와의 전통성과, 구조재로 쓰인 나무와 황토의 색감,
그리고 흙 내음이 우리나라 전통 향수와 아름다움을 풍깁니다.
옛 한국 전통 가옥의 장점과 현대적인 美를 더한
Modern Traditional Houses
"현대 전통 가옥"
Best Plan
010.7472.4972
pjmin1456@hanmail.net
BEST PLAN. 대표. 박 정 호 FAX. 042. 624. 1204 H.P. 010.7472.4972 pjmin71456@hanmail.net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454-6번지 2층

TV 오늘의 하이라이트

▲사랑이 오네요 (SBS오전 8시30분)

결혼을 전제로 은희와 만나고 싶다는 민수의 말에 놀라는 상호. 상호는 복잡하게 꼬여버린 일들을 떠올리며 민수와 은희의 관계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훈에게 해인의 출근을 물어 점심 약속을 잡는다. 한편, 상호의 표정을 살피던 다희는 잠시 헤어져있자는상호의 말에 충격받는데...

▲ 좋은 사람 (MBC 오전 7시50분)

녹음 파일을 들고 승희(오미희)를 찾아간 경주(강성미)는 공통된 적인 정원(우희진)을 정리할 동안 휴전을 제안한다. 한편, 기자간담회에서 생긴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승희는 정원의 전과를 들춰내는 기사를 내고 이에 분노한 정원은 승희를 찾아가겠다고 하는데...

▲ 내마음의 꽃비 (KBS2 오전 9시00분)

극적으로 승재(박형준)와 재회한 계옥(이주실)은 승재를 집으로 데려가 자신의 아들임을 확인시키고, 이를 모른 채, 안심하고 있던 일란(임지은)과 수창(정희태)은 집에 있는 승재를 보고 경악한다. 한편 승재는 자신을 모르는 척 했던 일란의 행동에 의구심을 갖게 되고, 승재의 등장으로 자리에 위협을 느끼던 수창은 승재에게 살가운 모습을 보이는 일란과 혜주(정이연)를 보며 분노를 느끼는데...

케이블 명화

▲이스케이프 플랜 (OCN 오후 11시00분)

영화 <이스케이프 플랜>은 지상 최고의 탈출 전문가가 알 수 없는 음모에 휘말려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도록 자신이 설계한 완벽 무결점 감옥 '툼'에 갇히게 되는 이야기.

"브레슬린은 그 어떤 감옥도 탈출 가능해!"

세계 최고 탈출 전문가와 가장 완벽한 감옥의 대결!

직접 감옥에 들어가 약점을 찾아내 탈출한 뒤, 탈출 불가능한 감옥으로 설계하는 최고의 탈출 전문가 '브레슬린'은 CIA로부터 비밀 사설 감옥의 테스트를 맡게 된다. 임무 수행 첫날 괴한의 공격을 당한 후 눈을 뜬 곳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중무장한 교도관, 24시간 감시되는 유리로만 만들어진 수감방, 하늘도 땅도 외부의 모든 것이 차단된 첨단 감옥! 바로 자신이 설계한 완벽한 감옥에 갇힌 '브레슬린'은 곧 함정에 빠졌음을 알게 되고, 자신에게 접근해오는 '로트마이어'를 만나게 되는데...

탈출 확률 제로!

최강의 감옥 '툼'을 탈출하기 위한 불가능한 플랜이 시작된다!

▲ 퇴마:무녀굴 (채널CGV 오후 10시00분)

"제게 숨기는 게 있으시면 안됩니다."

유명한 정신과 전문의 '진명'은 그의 조수이자 영매인 '지광'과 함께 퇴마를 하는 '퇴마사'이다.

평소처럼 빙의 환자를 치료하던 어느 날, 절친한 선배에게서 의문의 메일이 왔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선배의 죽음으로 찾아간 장례식장에서 무서운 기운을 느꼈다.

그 곳에서 그녀를 만났다!

"선생님…제발…도와주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사람처럼 변하고 이따금 기억을 잃는 '금주'.

얼마 전 남편의 죽음도, 점점 변해가는 딸의 모습도 나 때문인 것 같아 괴롭다.

남편의 장례식장에 그의 후배라는 정신과 의사 '진명이 찾아왔다.

내 안에 또 다른 뭔가 있는 게 분명하다!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녀와 얽힌 끔찍한 비밀!

지금 끝내지 않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케이블 & 위성방송

▶YTN (02)398-8000 ▶스카이라이프 1588-3200 ▶한국케이블 TV방송협회 060-398-3355

영화 · 오락

◈ OCN
8:40 크리미널 마인드 시즌10
12:30 나도 영화감독이다 청춘무비
13:50 점퍼
15:30 미션 임파서블:고스트 프로토콜
18:00 이스케이프 플랜
20:20 38 사기동대
23:00 히트맨

◈ 채널 CGV
6:50 다이하드2
9:00 드래곤길들이기
10:50 무비버스터즈
12:10 회사원
14:00 몬테카를로
16:00 아르고
18:10 나도영화감독이다 청춘무비
19:30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22:00 퇴마:무녀굴

◈ Mnet
6:50 언프리티 랩스타2
8:20 Mnet SHOW ME THE MONEY 5
10:10 언프리티 랩스타
11:10 소년24
12:50 MPD Music Talk (SNS/메신저)
13:40 랜선친구 아이오아이
14:40 Mnet SHOW ME THE MONEY 5
17:10 Daily Music Talk (SMS)
18:00 슈퍼레이스와 함께하는 M SUPER CONCERT
19:00 너의목소리가 보여3
20:30 Live on M (SMS)
21:30 음악의 신 2
22:30 언프리티 랩스타

스포츠 · 레저

◈ MBC스포츠플러스
10:00 2016 메이저리그
14:00 2016 메이저리그
17:00 2016 메이저리그 선수별 하이라이트
17:30 코리안메이저리거 라이브
18:00 메이저리그 명장면 TOP50
18:30 2016 메이저리그 선수별 하이라이트
19:00 야시장

◈ SBS 스포츠
7:34 2016 KBO리그 주간명승부 BEST
10:22 2012런던올림픽 메달리스트
11:16 2014인천 광역시장배 당구대회
12:37 극한의 도전 익스트림스포츠
13:11 정글의법칙in 파푸아뉴기니
17:11 주간야특특집
18:10 2016 베이스볼S
19:08 주간야구

◈ 온스타일
7:20 이효리의 X언니
8:25 온스타일라이브:기부티크
9:25 겟잇뷰티 2016
10:30 겟잇뷰티셀프
10:50 처음이라서
12:40 매력티비
13:10 이효리의 소셜클럽 GOLDEN12
14:05 겟잇뷰티 2016
15:10 효연의 백만라이크
15:35 오늘 뭐먹지?
16:45 매력티비
16:55 현장토크쇼 택시
17:45 더 바디쇼
18:35 겟잇뷰티셀프
18:55 유미의 방

뉴스 · 다큐

◈ YTN
8:00 이슈 오늘
10:00 뉴스타워
12:00 뉴스n이슈
14:00 호준석의 뉴스 인
16:00 뉴스Q
18:00 뉴스 통
19:30 신율의 시사탕탕
21:00 뉴스모란
22:00 김선영의 뉴스나이트

◈ 한국경제TV
6:00 굿모닝 투자의 아침
8:00 출발! 증시 830
10:00 증시라인 10
12:00 재테크, 알아야 번다
13:00 증시라인 13
15:30 부자 국민 만들기 연금술사
16:30 한국경제 이슈 N
17:00 성공예감 부동산 재테크
18:00 생방송 부동산 현장
19:00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00 장외주식 사구팔구
20:30 대박천국

◈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
10:00 건강한 아침, 메디컬365
11:00 세계로 가는 아시아 헌터
12:00 와일드 24시: 고요한 낙원, 남태평양
13:00 <와일드 스리랑카> 1부. 느림의 미학
14:00 <와일드 스리랑카> 2부. 시간이 멈춘 평원
15:00 <와일드 스리랑카> 3부. 새로운 공존
16:00 TV 동물농장
19:00 타이페이: 새로운 변화의 시작
20:00 나미브 사막의 코끼리
21:00 아시아 헌터

음악 · 애니

◈ MBC 뮤직
7:00 Good Morning MBC MUSIC
8:10 여자친구의 어느 멋진 날
9:00 쇼타임 마마무&여자친구
10:00 Weekly M CAST
11:00 피크닉 라이브 소풍
11:30 MBC MUSIC HIT SONGS
12:00 마이 리틀 텔레비전
13:30 복면가왕
15:20 라디오스타

◈ 애니맥스
7:00 또봇 탐험대- 전설의 기사 기가세븐
8:00 극장판 아따맘다 3D:엄마는 초능력자
9:00 헬로 카봇3
10:00 레전드 히어로-삼국전
11:00 터닝메카드W
12:00 안녕 괴발개발
13:00 포켓몬스터 XY&Z
14:00 라바 무지개 특공대
15:00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16:00 이웃집 외계인 지그&재그

◈ JEI 재능방송
5:00 Rolly Rolly, Show me the Story
6:00 출동! 슈퍼윙스
7:00 헬로 카봇3
8:00 정글에서 살아남기-마루의 어드벤처
9:00 놓지마 정신줄
11:00 토리코
13:00 닌자고대 스카이 해적
14:00 개구리중사케로로
16:00 정글에서 살아남기-마루의 어드벤처
17:00 헬로 카봇3
18:00 놓지마 정신줄
19:00 토리코

TV 프로그램

※문의 ▶ KBS 470-7320 ▶MBC 220-2348~9 ▶TJB 281-1101 ▶SBS (02) 369-109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6:00 KBS 뉴스광장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대왕 11:50 안녕 우리말 12:00 KBS뉴스12 1:00 여름특선 행복한지도 1:30 여름특선 영상앨범 2:00 2016 리우올림픽 특집 다시보는 대한민국올림픽 명승부 3:15 2016 리우올림픽 특집 리우, 우리 별을 꿈꾸다 3:40 세계는 지금 스페셜 3:50 감성애니 하루 4:00 4시 뉴스집중 5:00 KBS 뉴스 5 (수화방송) 5:30 동물의 세계 6:00 6시 내고향 6: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7:00 KBS 뉴스 7 7:35 우리말 겨루기 8:25 별난가족 9:00 KBS 뉴스 9 10:00 가요무대 11:00 KBS 뉴스라인 11:4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6:00 이욱정PD의 자연 담은 한끼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 7: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8:00 KBS아침 뉴스타임 9:00 TV소설 내마음의 꽃비 9:40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이웃집 찰스 12:00 뷰티풀 마인드 2:00 KBS뉴스타임 2:10 사람과 사람들 3:00 자동공부책상 위키2 3:30 TV 유치원 4:00 여유만만 5:00 다큐멘터리 3일 6:00 KBS뉴스타임 6:20 2TV생생정보 7:50 여자의 비밀 8:30 2016 리우올림픽 특집<리우, 우리 별을 꿈꾸다> 8:55 수상한 휴가 10:00 뷰티풀 마인드 11: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6:00 MBC뉴스투데이 7:50 좋은 사람 8:30 생방송 오늘 아침 9:30 MBC생활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1:00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12:00 MBC정오뉴스 12:20 통일전망대 1: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2:00 키즈 사이언스6 3:00 MBC뉴스 3:10 똑?똑! 키즈스쿨 3:55 깨미탐험대 4:25 워킹맘 육아대디 5:00 MBC이브닝 뉴스 6:05 생방송 오늘 저녁 7:15 다시 시작해 7:55 MBC뉴스데스크 8:55 워킹맘 육아대디 9:30 리얼스토리 눈 10:00 몬스터 11:10 MBC스페셜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6:00 모닝와이드 8:30 사랑이 오네요 9:10 좋은 아침 10:10 SBS 뉴스 10:25 SBS 생활경제 11:00 잘먹고 잘사는 법 식사 하셨어요? 12:00 SBS 12뉴스 12:50 웃음을 찾는 사람들 2: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3:00 3시, 뉴스브리핑 4:30 꾸러기 탐구생활 5: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톡톡 5:30 SBS뉴스퍼레이드 6:05 생방송 투데이 7:20 당신의 선물 8:00 SBS8뉴스 8:55 생활의 달인 10:00 닥터스 11:10 신의 직장	6:00 충청남도영상소식 6:25 대한늬우스 6:30 문학의 향기 7:00 은혜로운 말씀 7:30 열린미디어 시청자세상 8:00 셀셔뉴스 8:30 주정민의 스페셜 토크 9:00 특별한 대덕의이야기 10:00 다시보는 문화영화 10:30 한국의 섬 11:00 다이어트 미 12:00 굿뉴스 12:25 대한늬우스 12:30 해피쿡 맛있는 대화 1:00 다큐희망 1:30 메디컬 인 1:50 충청남도영상소식 2:00 반려동물 프로젝트 동행 3:00 굿뉴스 3:30 생생민원통 4:00 김정선의 파워노래교실 5:00 CMB 여름특집 한국의 섬 정자도 편 5:30 옛길, 시간을 걷다 6:00 뉴스와이드 6:30 해피쿡 맛있는 대화 7:00 특별한 대덕의 이야기 8:00 문학의 향기 8:30 로우 바리스타 9:00 뉴스와이드 9:30 열린미디어 시청자세상 10:00 다이어트 미 11:00 다시보는 문화영화 11:30 한국의 섬	6:10 EBS 특별기획 통찰 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7:30 로보카 폴리 7:45 뽀롱뽀롱 뽀로로 8:00 딩동댕 유치원 8:30 놀이터 구조대, 뽀잉 8:45 코코코 다코 9:00 캐니멀 9:30 원더볼즈 9:40 라이브 토크 부모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1:00 세계테마기행 11:40 한국기행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시대공감 12:40 지식채널 e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3:50 원더볼즈 14:30 미술탐험대 14:30 부릉! 부릉! 브루미즈 15:00 모피와 친구들 15:10 세계사 시간여행 15:35 꼬마기사 마이크 15:50 으릿차차 아이쿠 16:00 캐니멀 16:45 딩동댕 유치원 16:50 빵빵 요리버스 17:05 딩동댕 유치원 17:30 로보카 폴리 17:45 뽀롱뽀롱 뽀로로 18:00 톡! 톡! 보니 하니1 18:05 플라워링 하트 18:20 톡! 톡! 보니 하니2 18:25 두키 탐험대 18:40 톡! 톡! 보니 하니3 18:45 똑똑! 우리 몸X파일 18:55 톡! 톡! 보니 하니4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마루의 어드벤처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고부 열전 스페셜 20:40 다큐오늘 20:50 세계 테마 기행

한국YMCA 청소년 자전거국토순례단, 공주시 방문

한옥마을에 묵으며 공주에서의 추억 만들어

한국YMCA 청소년 자전거국토순례단이 지난 28일 뜨거운 태양 아래 자전거를 타고 광주에서 임진각까지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공주를 방문했다.

지난 2005년 평화통일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한국YMCA 자전거국토순례는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 · 함께 달리자! 내 힘으로 달리자!'라는 슬로건 아래 수많은 청소년들이 생명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올해는 청소년 300여명이 참가해 지난 25일부터 8월 1일까지 광주에서 임진각까지 499km를 달려가고 있으며, 28일에는 공주에 도착, 공주한옥마을에서 한옥체험과 함께 자체 프로그램인 추적놀이를 펼치는 등 공주에서의 추억을 만들어 갔다.

공주시 미디어담당관실 공보팀 배상훈 담당은 "생명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열심히 달리는 청소년들의 공주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공주의 경치와 문화관광자원을 만끽하며 즐거운 추억거리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aT '농식품 홈쇼핑 활용 및 진출 전략 과정' 개설

소비자와 TV, 직거래 상품으로 만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유통교육원(원장 조해영)은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경기도 수원시 소재의 aT 농식품유통교육원에서 진행하는 '홈쇼핑 활용 및 진출 전략' 과정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홈쇼핑 시장에 진출하기 원하지만 어려움을 느껴온 영농조합법인과 식품 제조 및 가공업체, 농식품 창업자, 한국식품명인협회 등의 요청을 받아 올해 새롭게 신설된 교육 과정이다.

교육생들은 TV홈쇼핑 업체의 구조 및 운영현황, 진출 전 준비 사항, 진출 이후의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사후 전략에 대해 배우게 된다. 또한 홈쇼핑 업체에 직접 방문 · 견학해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다.

교육대상은 영농조합법인,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 농식품 창업자, 농식품 법인 연합회, 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 한국식품명인협회 등이며 교육비는 국고에서 지원되어 1만 6천원의 자부담금으로 참가할 수 있다. 교육은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갖춘 aT 농식품유통교육원에서 이틀에 걸쳐 총13시간동안 진행된다.

송병배기자

충남 남부평생학습관, 진로코칭 지도자 양성과정 프로그램 종강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관장 황태화)은 7월 29일(금)을 마지막 수업으로 진로코칭 지도자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종강하였다.

강의는 3월부터 7월까지 매주 화, 금요일 9시부터 12시까지 총 40회로 운영되었으며, 논산시청 협력사업으로 지역 진로상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진행되었다.

이번 강좌는 직업진로를 분석해주는 MT직업진로상담사와 심리유형을 분석해주는 MT심리유형상담사 2개 과정 각 20회씩 진행되었으며, 학습자들의 자격취득을 돕고 직접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운영되었다.

학습관에서의 수업은 종료가 되었지만, 수강생들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논산지역 중학교 학생들을 연계하여 진로코칭, 상담 등 강사로서 첫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수강생 송현숙 씨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게 되어 기쁘고 기나긴 수업을 통해 자신감과 실력이 생겼다. 우리 지역 학생들의 꿈을 찾기 위한 진로탐색에 도움을 주고 싶다."며 소감을 전하였다.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 황태화 관장은 "지금의 열정 그대로 학생들의 꿈을 찾아주는 멋진 지도자가 되길 바라며, 학습관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학생들의 진로탐색에 도움을 주겠다."라고 밝혔다.

김태선기자

YG 새 걸그룹 블랙핑크 8월 8일 데뷔 확정 '관심↑'

YG엔터테인먼트에서 7년 만에 선보이는 걸그룹 블랙핑크(BLACKPINK)의 데뷔일자가 확정됐다. YG는 29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블랙핑크의 티저 포스터를 공개했다.

티저포스터에는 블랙핑크 멤버들의 손으로 추측되는 사진과 'BLACK PINK IN YOUR AREA'라는 문구와 함께 '8 AUG 8TH 8PM' 이라고 밝혀, 오는 8월 8일 오후 8시 데뷔를 예고하고 있다.

제니, 지수, 리사, 로제 총 4명으로 구성된 블랙핑크는 평균연령 만 19세로 길게는 6년, 짧게는 4년간 YG에서 고강도 훈련을 받아온 최고의 실력자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팀명 블랙핑크는 가장 예쁜 색이라 할 수 있는 핑크에 블랙을 덧붙여서 특별한 여성 그룹이라는 것과 동시에 외모와 실력을 함께 겸비한 팀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애초 9명 정도의 걸그룹을 기획했으나 수년 전부터 4명의 멤버로 최종 확정하고, 이들의 역량에 집중해온 만큼 멤버 개개인의 매력과 개성이 대중들에게 크게 어필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2NE1과 빅뱅의 다수 히트곡을 프로듀싱해 온 YG의 메인 프로듀서인 테디가 전곡 작사, 작곡 디렉팅을 직접 맡았다는 점에서 더욱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편, 블랙핑크는 최근 총 3편의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치고 데뷔 안무곡을 해외 유명 안무가 4명에게 동시 진행시키고 있을 만큼 블록버스터급 데뷔를 앞두고 있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대중 앞에서 설지 주목된다.

EN.F Total Interior Design 엔.에프 대표 손혁건 Mobile 010-8422-6946

한밭대, 부여 규암면서 벽화봉사활동 큰 '호응' 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는 25일부터 29일까지 4박 5일간 충남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에서 '벽화봉사활동'을 했다. 이번 벽화봉사활동은 한밭대 학회연합회(회장 박상영, 전기공학과 4학년)임원과 재학생 등 80여명이 참여해 마을 담장과 강변 제방 등 약 150m에 이르는 구간에 벽화를 그려 아름답고 깨끗하게 변화시켰다.

대전여고, 언어문화개선 캠페인 대전여자고등학교(학교장 강덕기)는 7월 28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한화와 SK의 경기에서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야구장 욕설퇴치 캠페인'을 전개했다.

대전사회적기업협의회, 대전지방법원 지역맞춤형 초청행사 참가 대전사회적기업협의회(회장 장능인, 뒷줄 왼쪽 3번째)는 7월 29일 회원사 대표 11명과 함께 대전지방법원의 초청으로 열린 지역맞춤형 초청견학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청양군 목면새마을협의회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 지난 29일 집수리 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 회원 25명은 이른 아침부터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곡리 기초생활수급자인 김씨 가구를 방문해 도배와 장판 교체 봉사를 실시했다.

충남대병원 조덕연 진료처장, 메르스 대응 유공자 대통령표창 조덕연 진료처장(오른쪽)은 지난 29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5 메르스 대응 유공자 포상」행사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외국인들도 전통문화체험 좋아요! 국제청소년 페스티벌에 참가한 한·중·일 청소년 60여명은 지난 28일 대치면 상갈리 가파전수관을 방문해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이번 행사는 상갈리와 재매결연한 군포시가 주관해 한·중·일 청소년들이 떡메치기, 인절미 만들기 등을 체험하고 전통음식을 함께 맛보며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배재대학교 주최… 소설 우수상 강혜원 양 등 4명

제24회 청소년 소월문학상 대상에 양혜림 양

배재학당 출신 민족시인인 김소월 선생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제24회 청소년 소월문학상 대상에 시 부문에 응모한 경기 고양예고 3학년 양혜림 학생(사진)이 선정됐다. 양혜림 학생은 이번에 '캐치볼' 등 3편을 응모하여 대상을 차지했다.

청소년소월문학상을 주최하고 있는 배재대학교(심사위원장 정문권 한국어문학과 교수)는 7월 29일 총 3백85편의 응모작을 대상으로 심사해 시와 소설 부문 당선작을 발표했다.

시 부문에서는 양혜림 학생을 비롯해 우수상에는 ▲고은진(퇴계원고 3· '세탁소 게임') ▲신윤하(광주 대성여고 3· '달력') ▲이향진(고양예고 3· '상의 태어나는 노래') 학생 등 3명이 당선됐다.

또 소설 부문 우수상에는 강혜원(안양예고 3) 학생이 응모한 작품 '각인'를 비롯해 김재희(고양예고 3· '연필과 사프와 볼펜'), 이의정(고양예고 3· '부화'), 임동민(안양예고 3· '잼')이 각각 선정됐다.

양혜림 학생은 "시를 쓰는 이유는 나만의 내면적인 흐름을 가지기 위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 쓰는 것 같다"며 "지금까지 시를 가르쳐준 모든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정진 하겠다"고 말했다.

시 부문 심사를 맡은 최문자 석좌교수는 "양혜림 학생의 작품은 서로 응시할 순간을 얻기 위한 캐치볼을 시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감성이 두드러진다"고 대상작품의 선정 이유를 밝혔다.

소설 부문 심사를 한 정문권 교수는 "청소년들의 작품이었지만 모두가 고르게 어떤 수준을 지키면서 다양한 장점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 꾸준히 정진하면 좋은 작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한편 부문별 장려상은 ◇시 부문 ▲김민서(고양예고 2· 벽화마을) ▲윤효진(안양예고 3· 울다가 웃으면) ▲이아영(퇴계원고 3· 변명) ◇소설 부문 ▲조민정(광주 대광여고 3· 회전문 빌라) ▲조유정(용인흥덕고 3· 전구) ▲지하늘(안양예고 2· 병아리칸) ▲최진아(김해중앙여고 3· 철장을 넘다) 학생이 받았다.

이정복기자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의료 봉사단

서산시 부석면 무료 치과검진 실시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의료봉사단(지도교수 최경규)이 서산시를 방문,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치과검진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단은 치과대학 교수를 포함 45명의 의료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석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부석면 주민 120여명에게 충치치료, 스케일링, 사랑니 발치 등 현장시술과 올바른 치아관리에 대한 개별교육을 실시했다.

의료봉사단을 이끄는 최경규 지도교수는 "의료인으로서 작은 재능기부지만 큰 보람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라 할수 있는 농촌지역을 찾아다니며 봉사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을 격려 방문한 권혁문 서산시 부시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산시를 찾아 의료봉사를 실천한 봉사단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타의 귀감이 되도록 나눔을 실천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은 매년 농촌지역을 돌며 제때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산=김정한기자

한국영상대학교, 육군과 해군 정훈부사관 대상

영상콘텐츠 제작 능력 향상 위한 실무 교육

한국영상대학교(총장 유재원)는 육군과 해군 정훈부사관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제작 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대학은 지난 18일부터 29일까지 육군 정훈부사관 15명을 대상으로 영상촬영편집 기초과정을 25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는 해군 정훈부사관과 군무원 12명을 대상으로 영상편집·특수영상 심화과정을 운영한다.

기초과정은 ▲영상촬영기초 ▲영상편집 ▲보정과 합성 ▲자막작성 등으로 운영되고, 심화과정은 ▲모션그래픽 ▲프리미어 편집 ▲3D 프로그램 ▲타이틀제작 등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하루 6시간씩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마지막 날에 과제작품 시사회를 통해 마무리된다.

유재원 총장은 "우리 대학은 매년 체계적인 교육시스템과 첨단 장비를 통해 군인들의 영상제작 능력을 단 기간에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영상대는 지난 10여 년간 육군과 해군 등 군인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영상제작과 공연실무교육을 실시해왔다.

정상범기자

강순닭, 온양5동과 후원 협약 체결

복지허브화 위한 행복키움지원사업 추진 및 나눔문화 확산

아산시 온양5동 행복키움추진단(단장 강연식)은 지난 28일, 용화동에 소재한 강순닭(대표 강순덕)과 온양5동 복지허브화를 위한 행복키움지원사업 추진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후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강순닭은 1년간 매월 5만원을 온양5동 행복키움기금에 후원하게 되며 조성된 기금은 온양5동 행복키움추진단 긴급복지지원사업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저소득가정에 대한 정기적인 지원활동을 추진하는데 사용하게 된다.

강순덕 대표는 "강순닭은 생긴지 얼마 안 된 신생 치킨전문점으로 주변의 큰 관심과 사랑으로 금세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후원협약을 통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작은 힘으로나마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연식 단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활동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앞으로 온양5동 행복키움추진단도 협약을 통해 조성된 기금을 토대로 관내 저소득 가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온양5동 복지허브화를 위한 봉사 및 후원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산=리량주기자

건양의대, 충남여고 초청 진로캠프 시행 건양대학교(총장 김희수) 의과대학 약리학교실에서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충남여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 레크레이션(R&E)을 함께하는 진로캠프를 실시했다. R&E 프로그램은 고등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과학실험을 체험하고 대학교에 와서 체험해보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미래 진로를 알아보는 캠프다.

신성동새마을협의회·부녀회, "올여름 에너지를 부탁해!" 새마을운동 유성구지회(회장 강전일) 산하 새마을지도자신성동협의회(회장 차인환)·신성동새마을부녀회(회장 손정옥)는 지난 29일 오전 11시 새마을지도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성동 금성공원일대 유동인구 지역에서 "온실가스줄이기, 피크시간대 전기사용자제 등 에너지절약의 실천으로 올여름 에너지를 부탁해"를 외치며 유동인구에게 손부채를 나눠주는 등 에너지절약캠페인을 실시했다.

KAIST 최병규 명예교수, 미담 장학회 이사회 의장 선출

미담장학회(공동대표 장능인)는 지난 24일 KAIST 최병규 명예교수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최병규 명예교수는 미국 Purdue 대학교 산업공학 박사를 졸업하고 1983년부터 2014년까지 KAIST 교수로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2014년 교직에서 은퇴한 후 한마음교육봉사단을 설립하여 다문화 청소년 및 어머니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다문화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최병규 교수는 미국과학정보연구소(ISI)가 선정하는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연구자' 명단에 등재되는 등 세계적으로 연구·교육 실적을 인정받는 석학으로 알려져 있다.

최병규 신임 의장은 "우리 미담장학회가 하는 교육은 시간이 남을 때 한 번씩 하는 봉사와는 다르다. 이사회 의장으로서 미담장학회 구성원들과 비전을 공유하고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상범기자

"가족 건강, 국가 암검진으로 시작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강희권)는 7월부터 5개월간 대전 유성온천역에서 「국가암검진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매월 넷째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혈압 및 체성분 측정 등 건강체크를 하는 건강부스도 운영한다.

대전지역본부 관계자는 "캠페인을 통해 우리 국민의 사망률 1위인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기 검진이 가장 중요하며, 암은 조기에 발견만 하면 90% 완치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다"고 밝혔다.

강희권 본부장은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암의 1/3은 운동이나 생활습관개선 등을 통해서 예방이 가능하고, 1/3은 조기검진을 통해 완치할 수 있으며, 나머지 1/3은 적절한 치료로 완치 가능하다"며, "암을 늦게 발견하면 치료기간이 길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주게 되니 조기에 암 검진을 받기"를 당부했다.

송병배기자

인 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개방형 직위 임용 ▲ 경영지원본부 계약처장 계약직 1급(개방형직위) 심중재(沈重材)

■ 한밭대학교

▲교무처장 강진규(산업경영공학과) ▲학생취업처장·장애학생지원센터장·현장실습지원센터장 남윤의(기계공학과) ▲기획처장 최종인(경영회계학과)

※ 한밭대학교 인사 본보 홈페이지 참조.

대투 논단

세종 아파트 불법전매수사 본말전도

김 헌 태
논설고문

대전지검이 세종시 아파트분양권 불법전매를 수사해 27명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불법전매알선 혐의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기소, 2명은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검찰이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전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 수십 명이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불법전매에 연루된 공무원이 많게는 200~3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한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줄어든 숫자로서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던져주고 있다. 당초 5월 수사가 시작될 때는 많게는 2~3천명까지 연루되었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도 수자였는데 10%선으로 줄어든 모양새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세종시 중앙공무원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특별분양 아파트를 불법 전매해 수천 만 원의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전매알선혐의가 핵심이 아니라 이런 투기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한 일부 중앙공무원들의 불법 행위 자체가 중대범죄라는데 있는 것이다.

이 사건 수사 이후에 세종시에서는 100군데가 넘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문을 닫아 초비상사태를 방불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법전매에 연루된 부동산 중개업소라는 점이 확인되는 셈이다. 이들은 벌써 입건도 되고 구속도 되고 수사가 아직도 진행형이다. 27명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불법전매알선혐의로 입건되었다고 하면 연루된 공무원도 당연히 나와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자는 연루혐의로 입건되어 구속 등의 조치가 취해졌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연루된 공무원은 왜 발표를 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다. 당연히 연루된 부동산 중개업소와 함께 발표되는 것이 당연하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아 연루공무원들부터 발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불법전매 알선혐의로 업자들이 입건되었다면 이 과정에 연루된 공무원이 밝혀졌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왜 이 연루 공무원을 아직도 조사 중이라고 하는가 알 수가 없다. 더욱이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추정 숫자로 발표되는 이유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공무원 봐주기라고 보고 싶지 않지만 석연치 않다.

시민단체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세종시는 아파트특별공급, 거주자 우선제도를 이용한 추가분양, 이주지원금지원, 통근버스 운행, 취득세감면과 대출금지원 등 공무원 특혜도시라는 지역사회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한 공무원 유인책으로 시행된 공무원아파트 특별공급이 오히려 투기수단으로 악용된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행위라는 강경한 입장들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벌써부터 나온 것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모두가 수사결과에 귀추를 주목하고 조속한 발표를 기다렸는데도 부동산 중개업소만 나오고 어찌하여 연루된 공무원은 밝히지 않는지 그야말로 기대 이하 태산명동서일필(太山鳴動鼠一匹)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불법 행위자를 참고인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참으로 말이 안 된다. 불법전매를 한 공무원은 그 자체가 범법자이고 그 정황과 실체가 드러나는데도 참고인 정도로 조사를 한다면 앞뒤가 안 맞다. 구속된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으면 이에 연루된 공무원도 함께 구속되어야 마땅하다. 피의자로서 공범이 아닌가 말이다.

우리는 이번 세종시 특별분양 아파트 불법전매를 중요한 사건으로 보는 이유가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 세종시의 조기정착을 위해 과분한 각종 인센티브가 시민불만을 초래하면서까지 중앙공무원들에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불만의 눈초리도 바라보고 있다. 더욱이 이제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입주하여 그야말로 행정중심복합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어 더욱 그렇다. 중앙공무원들이 특별분양 아파트를 투기성 불법전매로 팔아 수 천 만원을 챙기고 일부는 통근버스를 이용한다는 비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앙부처 일부 공무원들의 개념없는 탈법행위는 그냥 대충 넘겨갈 정도의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누구보다도 모범적이고 솔선수범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저지르는 이런 불법 행위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는 시중의 여론이다. 이미 저지러진 이들의 불법행위를 조속히 한 점 의혹없이 명쾌하게 발표하여 선의의 공직자들마저 이미지를 흐리고 업무에 차질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번 세종시의 아파트 특별분양 불법전매 사건의 실체가 사실상 확인되어 세종시가 공무원들의 불법 투기의 장이 되어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다시금 강조하거니와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전매 알선행위가 우선이 아니고 특별분양을 받은 아파트를 불법으로 팔아넘긴 중앙공무원들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핵심 주어라는 점이다. 불법사안의 핵심인 공무원들을 참고인 정도로 생각한다면 이는 본말이 전도된 사건 수사에 다름이 아니다. 지금 이 사건의 초점과 관심은 중앙공무원들의 불법전매행위로서 단 한명도 빠짐없이 찾아내어 단호하며 엄정한 처벌로서 공직자들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다. 애드벌룬을 띠운 중간수사 발표는 의미가 없다. 업자만 구속하는 중간수사발표는 핵심 알맹이가 빠진 발표로 밖에 볼 수 없다. 조속한 최종결과 발표를 요구한다. 왜냐하면 삼척동자로 알 수 있는 어렵지 않는 수사로 전수조사로서도 명확하게 가릴 수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김영란법도 오는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공직기강에 대변혁을 가져올 전망이다. 지지부진해서는 안 된다. 조속한 마무리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의 새로운 동력을 되찾기를 바란다.

사 설

학대 아동 제대로 보살펴야

아동 학대 피해가 늘고 있지만 이들 아동 보호를 위해 사용키로 한 복권기금은 40% 가까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5 회계연도 예비심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학대 피해 아동의 쉼터 사업에 사용키로 한 복권기금은 57억 5000만원이다. 이 중 48억700만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됐고, 36억3600만원이 사용됐다. 집행률이 63.7%%에 그친 것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5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속보치)'을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사례는 1만1709건으로 2014년 1만27건보다 16.8% 증가했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같은 기간 14명에서 16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겨울에는 계모와 친부가 7살짜리 아들을 수개월간 화장실에 가둬놓고 세제를 뿌리는 등 학대를 하다 결국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기재위는 "아동학대 피해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전국의 학대피해 아동 쉼터는 50개소에 불과하며 쉼터 상근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족 등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쉼터 예산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는 향후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복권기금 지원 예산이 충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 복지예산 부담 해소를 위해 기금부담 비율을 확대하는 등 학대피해 아동 지원예산 확대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날로 늘어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학대 받은 아동을 제대로 보살피는 사후체계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들이 2차 3차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캠핑장 점검 필요한 시기다

7명의 사상자를 낸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 이후 캠핑장 안전기준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캠핑장이 소화기조차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니 우려가 크다.

최근 국민안전처가 전국 캠핑장 1663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진행한 결과 등록된 캠핑장(1175개소)과 미등록 캠핑장(416개소)에서 41건의 안전미흡이 지적됐다. 휴·폐업한 캠핑장 72개소는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강화도 캠핑장 사고 이후 관광진흥법과 시행령을 바꿔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을 마련하고 야영장을 등록시설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모든 등록 야영장은 야영장 시설별로 소화기와 천막 방염처리 등의 야영장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하지만 미등록 캠핑장 416개소는 제대로 된 안전관리 기준에 맞춰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은 캠핑장 37곳은 모두 미등록 야영장이었다. 미등록 캠핑장이 105개나 있는 강원에서는 소화기 미비치 캠핑장이 15개소나 됐다. 그 뒤를 △경남(4) △전남(4) △경북(4) △경기(3) △충남(3) △울산(1) △전북(1) △충북(1) △창원(1) 등이 이었다.

이와함께 소방차 진입이 아예 안 되는 곳도 5곳이나 됐다. 경북 고령힐링캠핑장은 현재 등록을 추진 중인 곳으로 소화기도 없었고 소방차도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도로가 좁았다. 전남의 캠핑장은 등록된 캠피장이었지만 도로협소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웠다.

캠핑 전 적합한 안전시설을 갖췄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캠핑장 화재 예방을 위해선 음식물 조리 등 화기취급 시 텐트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주변에 소화기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둬야 할 것이다.

기 고

아웃사이드

송 명 석
영문학박사 · 세종교육연구소장

세상이라는 텍스트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

반복되는 일상은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내몰고 사회가 원하는 사양만큼 자신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도 한다. 경쟁 속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군중속의 소외에서 벗어나기 위해, 날마다 구두끈을 고쳐 매고 어디론가 뛰어간다. 때론 방향도 모른 채 헤매며 뛴다. 광야에 홀로선 듯 외롭고 에너지를 잃은 심신은 허기가 진다.

오늘도 밤낮으로 계속되는 폭염에 정신이 혼미하다.

더위도 식힐 겸 '문화의 날, 이라며 할인티켓을 받아 영화 '인천상륙작전'을 관람했다. 실존 인물과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상영 첫 날 박스오피스 예매율 1위에 올랐다. 인천상륙작전하면 우리는 맥아더장군과 연합군을 떠올린다. 그들이 승리를 역사에 기록 할 수 있었던 이면에 그 배경을 만들어준 무명의 군인, 민간인, 주민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음을 간과하지말자는 것이 영화의 핵심이다.

당시, 한반도는 경상도 일부를 제외하고 전 국토가 북한군에 점령당하여 백척간두에 섰다. 명백한 침략 전쟁에 맞서 16개국의 유엔군을 이끌고 남한을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총사령관 맥아더가 인천상륙작전을 계획했을 때 미 해군과 미 합동 참모부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쳤다. 인천은 수로가 좁아 군함의 이동이 어렵고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 4킬로나 되는 거대한 갯벌로 밀물이 들어오는 2시간 안에 작전을 수행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맥아더는 한반도의 허리인 인천을 쳐서 적의무기와 보급로를 차단하고 서울을 거쳐 강원도까지 상륙을 할 계획으로 인천을 고집했고, 밀물이 가장 많이 들어와 수심이 깊은 날을 택하여 단 2시간 만에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한다. 이 X-레이 작전이 성공하기까지의 우리 군과 민간인들의 첩보전이 관전 포인트다. 사람마다 영화를 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나는 더 글라스 맥아더 장군의 기상천외한 고집과 발상을 보면서 전율을 느꼈다.

언제나 세상을 바꾸는 건 다수의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안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확률이 5천분1밖에 없어서 안 되지만 그러므로 된다고 하는 사람은 성공확률이 5천분의 1밖에 되지 않으므로 적이 가장 방심하는 지역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인천상륙작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 맥아더 최고사령관의 역설적 해석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결론적으로는 전쟁에 승리한 최고의 사령관으로 영웅 대접을 받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는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서 박수 받은 인물은 분명 아니었을 것이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내 방법이 옳다 라고 한다면 고집불통 괴짜로 취급받았을지도 모른다.

평범한 사람들과 생각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괴짜라 부른다. 열외 자들이다. 비주류를 말한다. 어느 사회건 아웃사이드들은 존재한다. '아웃사이드'의 사전적 의미는 테니스, 탁구 ,축구 ,배구 따위에서 공이 규정선 밖으로 나가는 일이라고 되어있다. 룰과 규칙으로 표현되는 규정 선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만든 기준이다.

이러한 체제에 순응하지 못하고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철없는 행동으로 치부하거나 반체제 이념에 경도된 사회 불안세력으로 단정해 버리기도 하는 이들이, 때로 사회에 커다란 화두를 던지며 우리가 상식 내지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들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언젠가 신문에서 대학 입시 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 가방끈들의 모임'이라는 단체를 보았다. 나름의 경험과 생각을 통해 대학 이외의 성취에 대해 우리사회가 제대로 평가하지 않음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었다. 한국사회에서 과거의 학벌과 현재의 배경은 서로를 옭아매고 있는 게 사실이다. 과외 알바를 구할 때도 학벌의 장벽에 부딪치고 수능점수 몇 점 차이로 하류, 삼류 꼬리표를 평생 달게 해서는 곤란하다. 학벌이 뛰어나다고 현재의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일류대학 나온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다. 성공의 키워드는 무엇 때문에 성공한다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인간의 성공에는 처음부터 화려한 출발은 별로 없다. 작은 노력들이 반복으로 완성되어 가는데, 거기에는 미미한 시작과 많은 시련과 이를 극복해나가는 무수한 시도가 있었다. 세상을 바꾼 위인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원래부터 잘 되어 왔고, 계속 잘 되고, 끝까지 잘 되었다는 인생 스토리를 가진 이가 없다.

최고의 발레리나 강수진의 은퇴 공연무대는 아름다웠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 입단 후 장벽 높은 유럽의 발레리나들과 비교하며 10년을 우울한 아웃사이드로 보내다가 남들과 비교하지 않기로 맘먹고 날마다 자신에게 충실하다 보니 어느 날 최고가 되어 있더라고 했다.

롯데의 천재타자 김문호는 덕수상고 시절 화랑대기 MVP 였으며, 최고의 타자였으나 롯데에 입단 후 뛰어난 타자들 뒤에서 후보 선수로만 10년을 보내다가 남들과의 비교를 걷어치우고 자기 능력대로의 방식으로 자기만의 속도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보니 금년 두 달간 타율이 4할대로 최고의 타자가 되어 있더라고 한다.

소위 아웃사이드들의 대부분은 미움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다. 남들의 평판에 흔들리지 않는다. 사회적 여론이나 뭇사람들의 논리에 의하면 불가능하고 허황된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가지고 싶고, 되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마음의 결단을 하며 자신만의 방법으로 생각의 반등을 시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기존의 텃새를 이기고 종국에는 상황을 장악하기도 한다. 서울 토박이들 보다 타향에서 온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미국 케나다 등에서도 잘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민자 출신 들이다. 세월이 가고 살다보면 그때의 비주류가 오늘날 주류가 되어 당당히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 철강 왕 카네기가 그러했고, 케네디 가문이 그러했고, 오바마 대통령도 그러하지 않았는가.

아웃사이드들이 열악한 조건과 배경, 편파적인 차별과 애로 사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이드를 이긴 핵심은 무엇일까? 투지와 도전 정신, 그리고 치열한 삶의 의지와 남과 비교하지 않는 자존감이다. 사실 내가 꼭 남들과 같이 살아갈 이유는 없다. 그래서 나를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내가 원하는 삶을 포기하지 말자.

사는 것이 다 힘들다고 말한다.

정도의 차이뿐 모두가 그러하다.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고 내가 가진 것,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자신을 긍정하자.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향하는 여정의 출발점은 생각이다.

그렇다면 지금 내 생각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아무리 급해도 과속운전은 안되요

기 고

허 윤 석
홍동 · 장곡 파출소 순경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세계 15번째로 2천만대를 돌파했다는 얼마 전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다. 자동차가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또한 증가했다. 교통사고의 원인에는 몇 가지가 있지만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과속운전이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다보면 1차로를 빠르게 주행하는 과속차량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속 운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도로위에 폭탄과 같다. 과속운전을 하게 되면 커브길을 만나게 되거나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대처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바로 교통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교통사고는 큰 물적, 인명 피해를 가져온다.

이러한 과속운전을 막기 위하여 경찰에서는 무인단속기를 설치하거나 유인단속을 실시한다. 과속운전은 그 경중을 따져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 승용차의 경우 20km~40km를 초과하게 되면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원, 41~60km를 초과하게 되면 벌점 30점에 범칙금 9만원, 60km를 초과하게 되면 벌점 60점에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요즘 차에는 카메라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카메라가 있을 때만 속도를 줄이는 운전자들이 많다.

과속운전 또한 습관이라고 말한다. 범칙금, 벌점을 피하기 위해서 단속장소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것보다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규정속도로 운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일 것이다.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E-mail : d-mail@han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투 DT 大田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 · 바른신문
2006년 5월 17일 창간

발행 · 편집인 김 현 정 | 회 장 김 성 구 | 편집국장 한 대 수 | 논설위원 조 정 호
전화안내 042)538-3030 | 기사제보 042)538-1601 |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안내 042)538-1602 | 광고신청안내 042)538-1603 | 구 독 료 월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인쇄 처 : (주)중부인쇄산업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유쾌한 웃음! 가슴 뭉클한 감동! 뜨거운 공감!

독일로 아리랑

Musical Germany Arirang

영화 국제시장에 이어
뮤지컬로 재 탄생!

영화에서 못다한 파독광부, 간호사들의 희망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기적을 캐내고 나라를 구하다.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시절 조국 근대화의 초석이 됐던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에 대한 삶의 흔적을 뮤지컬로 담아내봅니다

한국 전쟁 후 우리는 너무도 가난했다. 자본, 기술 그리고 변변한 지하자원 하나 없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가난에 허덕이는 가족들을 남겨두고 도착한 낯선 땅 독일, 약간의 설램과 긴장속에 지하 막장의 광부로, 병원의 간호사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였다.

파독근로자들이 고국에 송금한 봉급은 대한민국 경제부흥의 불씨가 되었고 이들의 근면한 모습은 긍정적인 한국인상을 형성 시키며 한-독간의 민간 사절단 역할을 하였다

2013년 9월 한독수교 130주년, 파독 50주년 기념 전시회에서 작품의 영감을 떠올리며

2016. 11. 4~5.(금,토) 한밭대학교 문화예술관

주관 : 대전투데이 후원 : 대한간호협회 / 남해독일마을 공연문의 : 042-538-3030